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논문

한국-베트남 교류와 화산 이씨의
활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응웬 티 타이 링

2021년 2월



한국-베트남 교류와 화산 이씨의 활동 연구

지도교수 양정필

응웬 티 타이 링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응웬 티 타이 링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Research about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Vietnam and the act of the
Hwasan Lee family

Nguyen Thi Tai Linh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EONG–PI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1년 2월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Yang Jeong–Pil, Prof. of History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내용	4
II. 이용상의 고려 망명과 화산 이씨의 형성	11
1.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교류 관계	11
2. 구비전승으로 본 이용상의 망명과 화산군 봉작	16
3. 화산 이씨의 형성과 발전	24
III. 화산 이씨의 활동과 그 영향	32
1. 화산 이씨의 베트남 귀환 노력	32
2. 베트남에서 화산 이씨의 활동	41
1) 경제적 활동	41
2) 문화적 활동	46
3. 화산 이씨의 활동이 한국-베트남 관계에 끼친 영향	51
1) 한국 언론의 화산 이씨 관련 보도와 한국-베트남 관계	51
2) 베트남 언론의 화산 이씨 관련 보도와 한국-베트남 관계	58
IV. 결론	67
참고 문헌	71

▶ 표 차례

<표1> 화산 이씨 전국 인구조사 결과 (2015년 기준) 31
<표2> 한국 언론의 화산 이씨에 대한 기사 (1995~2020년) 53
<표3> 베트남 언론의 화산 이씨에 대한 기사 (1995~2020년) 59

▶ 그림 차례

<그림 1> 수향문 - 몽골군이 투항하는 장소 28
<그림 2> 리 왕조의 제사하는 도 사당 34
<그림 3> 화산 이씨 이창근의 인터뷰 기사 35
<그림 4> 리 왕조의 제사한 물건들을 발견 36
<그림 5> 응웬득틴이 찍은 “8帝 현몽” 37
<그림 6> 이창근의 가족이 베트남 귀화 결정을 받음 40
<그림 7> 세종대 광개토태관에서 열린 개청식 44
<그림 8> 왼쪽 이상준과 오른쪽에 베트남 총리였던 팜 반 카이 46
<그림 9> 도 사당에 전시된 화산 이씨 후손들의 축제 참석 사진 48
<그림 10> 화산 이씨 후손들이 도 사당에게 「화산이씨세보」를 기증함 49

Abstract

Research about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Vietnam and the act of the Hwasan Lee family

Nguyen Thi Tai Linh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formal diplomatic relations on December 22nd 1992. Over the past 28 years,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rapidly. The bilateral relations upgraded to “Comprehensiv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in 2002 and subsequently to “Strategic partnership” in 2009. In times past, Viet Nam-Korea relations have grown up positively in many fields such as politics, investment, trade and tourism. Vietnam affirms that Korea is one of Vietnam’s most significant partners in all fields, while Korea also considers Vietnam as a key partner in the RoK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Regular exchanges of delegations at all levels, especially the official high-ranking visits of two countries’ leaders, have shown that the bilateral political trust became more and more strengthened.

With today's achievements, it is not only because of two governments’ policies and orientations which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it is also because of historical and cultural similarities between Vietnam and Korea. Being strongly influenced by the

East Asian culture is the greatest similarity between two countries. It is supposed to be a long-standing culture in both countries. Although Vietnam is geographically far to Korea, both countries share borders with China. That's why Vietnam and Korea have suffered a lot of invasions and colonization of China in the past. That's also why Buddhism, Taoism and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tools to propagate thoughts and culture for a long time in the history of Vietnam and Korea.

Despite the fact that two countries had never establishe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before 1992, the emissaries of two countries had many chances to meet and discuss by the tributary system with China. In particular, the notable meetings between the envoy Phung Khac Khoan and the Korean envoy Ly Toai Quang, Le Quy Don and Hong Khai Hy ... It's thanks to their mastery of Sinology, they indirectly established a relationship and created good images of Vietnam and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was also marked by the 1995's event when Prince Ly Long Tuong's descendants returned to Vietnam and claimed to be the Ly descendants of King Ly Cong Uan. In 1226, because of the imperial chaos, Ly Long Tuong (brother of King Ly Cao Tong, son of King Ly Anh Tong) and a number of clansmen secretly crossed the sea to Goryeo. Ly Long Tuong was favored and conferred Hoa Son general by the King of Goryeo as he helped the country cease the Mongol invasion. Thus, the Hwasan Lee family originated and started developing. But they still thought about their birthplace in Vietnam.

There is a mountain called Quang Dai Son in Hwasan. According to lore, Ly Long Tuong often climbed up there to look southward to his home country. Therefore, the mountain is named "Peak of Nostalgia".

Inheriting the love from Ly Long Tuong, the descendants of Hwasan Lee family always think about to their ancestral homeland.

After nearly 800 years, after Vietnam and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5 the Hwasan Lee family's descendants did go back to Vietnam to find their roots. It took them a long time to prove that they are descendants of the Ly family as the Korean Hwasan Lee family had lots of difficulties. They were recognized by Vietnam's government as well as Korea's government after all, thanks to their determination and continuous efforts. Especially in 2010, Vietnamese government granted decisions permitting the naturalization in Vietnam to Ly Xuong Can's family.

The return of the Korean Hwasan Lee family was not only a visit to their homeland, but it also shows that they have always been wholeheartedly thinking about their homeland, so they have contributed a lot to the economy, culture and society in Vietnam. For example, giving the Hwasan Lee's genealogy book and many important historical documents of the family's descendants helped reconnecting the Vietnamese's missing history about the prince Ly Long Tuong of the Ly Dynasty. As a Korean citizen with Vietnamese bloodline, the Hwasan Lee family always strives to make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better and deeper. Typically, Mr. Ly Xuong Can was inducted as the Vietnam tourism ambassador in Korea and he has had a lot of effort to develop the tourism of both countries. Mr. Ly Tuong Tuan established Viet-Korea foundation to promote cultural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Vietnam and Korea ... etc ...

Therefore, through this research, I want to bring a comprehensive view about the activities of the Hwasan Lee family in Vietnam, thereby assessing their roles in promoting the two countries' friendship as well

as building a good and close image between the Vietnamese people and Korean people.

Keyword: Hwasan Lee, family, Ly Long Tuong, Vietnam, South Korea, Goryeo, King Ly Cong Uan, friendship, Mr. Ly Xuong Can, Vietnam tourism, Hoa Son.

I.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992년에 한국과 베트남¹⁾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28년 간 양국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1년에 한국과 베트남은 전면적인 파트너 관계를 수립했고 2009년에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등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7.87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투자자본금의 20.8%를 차지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125개 국가 중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이다.²⁾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 SK, 롯데, 하나은행 등이 있고 전자, 제조업과 부품 생산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베트남 유학생은 3만 7천 명으로 증가하여 한국에서의 외국 유학생들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고,³⁾ 이외에도 한국에는 베트남 근로자나 결혼이민자도 많다.

한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외교관계 수립 후 양국 정부가 상호 간의 교류 진흥정책을 통해 우호 관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양국의 문화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있고 긴밀한 교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하면서 각자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1) 정식 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인도차이나반도의 동부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가 3.260km에 달한다. 면적은 33만 1.212km², 인구는 96.208.984명(2019년 현재), 수도는 하노이(Hanoi)이다.

2) 베트남 비엠티(vietstock) 신문 기사, “Vì sao dòng vốn Hàn Quốc chọn Việt Nam để đầu tư?”(한국은 왜 베트남을 선택해서 투자할까?), 2020년 1월 25일.

3) 베트남 젊은이 신문, “hơn 37.000 sinh viên Việt Nam du học Hàn Quốc”(한국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37.000명이 있다), 2019년 10월 1일.

문화를 지닌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을 사이에 두고 한-베 두 나라는 남쪽과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때론 적대적인 관계를, 때론 조공·책봉의 화해 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두 나라의 역사에는 유사점이 적지 않다. 한편, 베트남과 한국은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던 두 나라를 맺는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동아시아문화권에 속했던 베트남과 한국은 3교(유교·불교·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양국은 불교와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을 존중한다.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심 가치로 삼아 가족공동체를 중시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화를 소중하게 여겨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두 나라의 고유한 민족문화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결코 중국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맹렬히 길항작용을 하면서 강한 자긍심을 표출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을 매개자로 삼아 오래전부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베트남에 대한 한반도 최초의 기록은 신라인 최치원의 [桂苑筆耕集] 권16에 수록된 [補安南錄異圖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고려의 判三司事인 김지숙⁴⁾이 賀聖節使로 元 나라에 갔을 때 交趾國(현재 베트남)의 사신과 만났고, 베트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록 작지만 <上國의> 太祖께서 나라를 건국하시던 때에 앞장서서 신하가 되어 복속하였고 형제의 맹약을 맺었으며, 장인과 사위로서 친족과 같은 나라이니 원컨대 <저희들이> 먼저 폐백을 펼쳐놓고 하례할 것을 허락하소서.”⁵⁾

한편, 베트남의 역사서 『大越史記全書』에는 명나라 燕京에 파견된 레{黎} 왕조의 책봉사 馮克寬(Phùng Khắc Khoan; 1528~1613)이, 당시 조선의 사신으로 연

4) 金之淑(1237~1310)은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化平府 사람이다. 원종 때에 장군이 되어 삼별초의 난 때 삼별초를 토벌하다가 잡혀 진도로 압송되었다. 승화 후덕에 목숨을 건진 뒤 적의 정세를 알려 삼별초를 토벌하였다. 이 공로로 부지밀직사사에 올랐으며, 1290년에 전라도 도지휘사를 거쳐 판밀직사사가 되었다. 그 후 판삼사사가 되었고, 1295년에는 성절사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다. 1310년 첨의중찬을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5) 『高麗史』 권108, 列傳 권21, 諸臣 金之淑. “我國雖小自太祖奮義之初 首先臣服 兄弟有盟 甥舅有親 願先設幣陳賀.”

경에 머물고 있던 『芝峰類說』의 저자 李睟光(이수광; 1563~1629)과 친분을 나누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수광은 귀국하여 馮克寬과 필담으로 나누는 대화와 시들을 모아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당시 조선의 식자층 사이에 일종의 베트남 붐을 일으킬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곳곳에 교류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처럼 두 나라 사람들은 여러 계기를 통해서 상호간에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역사적 사건에서도 그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 특별히 주목되는 사건은 李龍祥 황자(리룡뜨엉; 1174~?)⁶⁾의 고려 망명 및 花山 李氏 가문의 형성, 그리고 한-베 수교 이후 그 후손들 일부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베트남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용상과 그 후손들의 활동 사례는 두 나라 사람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을 갖게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한국과 베트남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용상의 역사적 일화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개막식 영상축전에서 “안남국의 왕자 리룡뜨엉(李龍祥)은 고려에 귀화해 한국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됐다.”⁷⁾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화산 이씨 후손들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이 알려지면서 한국-베트남 우호 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780년의 시간이 흐른 후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으로 돌아와 끊어진 역사의 고리를 다시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베트남인에게 베트남 역사의 뿌리와 정신의 계승이라는 큰 의미가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상의 후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베트남을 다시 찾게 되었으며, 베트남 국적 취득과 그 이후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나 인터뷰 자료들을 정리·분석하여 한국-베트남 양국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정의 역사적 사건이나 일화 등은 국가 간의 관계에 좋거나 그렇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다행히 이용상의 일화와 후손들의 활동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좋은 영향

6) 李龍祥(리룡뜨엉; 1174~?) 리 왕조의 6대 왕 李英宗(Lý Anh Tông; 1136~1175)의 일곱째 아들이고 7대 왕 李高宗(Lý Cao Tông; 1173~1210)의 동생이다.

7) 중앙일보, “文 대통령 말한 '리룡뜨엉 왕자'의 비밀... '화산 이씨' 시조는 누구?”, 2017년 11월 14일.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111452>)

을 끼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용상과 그 후손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내용

베트남 리 왕조의 이용상 황자의 고려국 귀화에 대한 연구는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특히 김영건은 이용상 황자가 도착한 황해도 옹진군 화산리를 방문하고, 이용상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노인들을 통해 이용상에 대한 민간전승도 들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화산 이씨에 관한 연구를 일본에서 「安南花山君李龍祥の事蹟」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동일한 논문은 1943년에 일본에서 발간된 그의 저서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에 재수록되었다.

김영건은 1948년에 『黎明明의 조선』이라는 책을 내고 제3장에 ‘몽골군을 격퇴시킨 화산군 이용상의 사적’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는데, 베트남 역사에서 리 왕조가 쩐 왕조로 왕위를 선양한 것이 아니라 찬탈을 당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이용상이 도착한 곳도 황해도 옹진군에 속한 창린도로 파악하면서, ‘화산군 계보’를 통해 화산군 이용상이 베트남에서 망명해 올 때 平海公君과 같이 왔었던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용상의 연구에서는 몽골군을 물리친 공적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월성암에 대해 슬픈 이야기도 함께 기술하였다.

최상수는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1966년에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란 책을 발간하였다. 최상수는 이 책에서 「수항 문기적비」, 「화산이씨세보」와 「화산이씨 가전 실록」들을 통해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특히 제2장의 「13세기경 안남 왕자의 고려 귀화」라는 제목으로 이용상이 고려에 망명하는 과정과 몽골군을 격퇴하고 고려 국왕으로부터 화산 이씨의 성을 하사받은 것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한 사실적인 연구를 통해 이용상의 실체와 관련 정보를 입증하려고 노력

한 바, 베트남의 연구자들도 최상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시각에서 이용상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강무학의 연구와 저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6년 강무학의 역사 소설 『황숙 이용상』은 리 왕조의 역사와 배경, 이용상의 고려국으로의 망명과 몽골군을 물리친 공적, 고국 베트남에 대한 후손들의 그리움과 관심을 총 23장으로 구성하였다. 강무학은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 이용상에 대해서 묘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설의 내용 중에는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소설을 통해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 돌아보면서 이용상에 대한 소개를 널리 알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정수일은 「고려 품에 안긴 귀화인들」 중 이용상이 귀화한 역사적 상황과 이유에 대해 기술하였다. 여기서 정수일은 다른 연구자와 달리 이용상의 고려에 망명하는 길이 ‘계절풍을 타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왔다.’라고⁸⁾ 파악하였다. 또한 이용상의 아들인 장남 幹과 차남 一淸, 그리고 고려 공민왕 때 호조전서를 역임하고 국운이 다하자 고향에 은거하면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충절을 지켰다는 6대손 孟芾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재 이용상 후손들이 베트남에서 펼치는 활동과 더불어 왕조 건국기념식 때 하노이 오페라극장에서 화산 이씨 시조가 된 이용상의 일대기를 다룬 공연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정수일과 유사한 맥락에서 박기현은 2007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를 발간하고 고려시대에 귀화한 사람 중 하나로 ‘베트남 망명 왕족 이용상’을 소개하고 있다.⁹⁾ 박기현은 베트남 귀화인 이용상을 고려에서 ‘성공한 망명객’이라 규정하고 있다. 박기현의 책에서는 이용상에 대한 연구 범위가 넓지는 않으나 리 왕조의 상황, 이용상이 고려로 망명하는 길과 몽골족을 제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용상의 후손들이 고국 베트남을 다시 찾는 일을 언급하고 있다.

조흥국은 2009년에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의 제 3장 “고려시대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 이주와 정착”을 통해 이용상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¹⁰⁾ 앞에서 언급한 김영건, 최상수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

8)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우리는 어떻게 세계와 소통해왔는가』 (하), 창비, 2005, 152쪽.

9)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여사의 아침, 2007.

10) 조흥국,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소나무, 2009, 77쪽.

하였다. 여기서는 이용상에 대한 내용 외에 조흥국이 『花山李氏世譜』를 근거로 베트남 리 왕조 시대와 이용상의 망명한 역사 배경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화산 이씨의 베트남 왕족 기원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 자료를 토대로 이용상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양국의 역사 자료를 비교하면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상에 대해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순교는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해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그는 이용상의 역사적 실존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이용상의 가계를 심도 있게 추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화산이씨세보」, 『대월사기전서』를 통해 이용상의 혈맥의 연속성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추적하여 파악하였다. 박순교의 연구는 범위가 넓고 화산 이씨 고택의¹¹⁾ 건축까지 연구했는데, 화산 이씨 고택의 가장 큰 특징은 ‘드물게도 남향이 아니라 동향으로 지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화산 이씨 고택은 또 풍부한 복류천이 흐르는 수맥지대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집안의 우물, 집 밖의 우물에서 확인되듯 풍부한 수량이 집 아래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묘사하였다.¹²⁾ 박순교 역시도 이용상과 화산 이씨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항구적으로 진작시킬 만한 의미 있는 역사적 상관관계를 구명하려고 하였다.

박순교의 연구 결과는 이용상과 화산 이씨 가문에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순교 역시도 이용상과 화산 이씨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항구적 친밀을 진작시킬 의미 있는 역사적 상관관계를 구명하려고 하였다.

강은해의 연구 특징은 베트남 구비전승과 전통극 ‘觀音氏敬(관음티깁)’¹³⁾을 통

11) 경북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654-2번지.

12) 박순교, 「Vietnam(大越) 황자 ‘李龍祥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4) ‘花山 李氏 古宅(경북 영주시 장수면 星谷里 所在)’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제42집, 동아인문학회, 2018.

13) 관음티깁은 중세 후기에 나타난 漢喃(Hán Nôm) 서사시의 이름이고 베트남 현대 무대예술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관음이라는 용어는 베트남 관음 신앙 ‘관음 어머니’, ‘관음 할머니’, ‘관음 성모’에 대한 반영으로 베트남 전통극 <관음티깁>의 제목은 여주인공 ‘티깁은 관음이 되다’는 뜻을 담고 있다. 티깁은 여성으로써 인생에 여러 고난을 겪고 남장승려로 출가했는데, 어느 날 ‘티모우’라는 여성이 티깁이란 남장승려가 자신을 임신시켰다며 다른 남자의 아기를 낳고 절에 버렸고, 이후는 티깁은 티모우의 무고로 주변 사람들에게 수난을 당하면서도 티모우가 낳은 어린아이의 양육까지 맡아 고생하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티깁의 사후(死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스님은 제단을 만들어 그녀의 억울함을 푸는 의례를 거행하는데 釋迦牟尼는 티깁의 성불한 것을

해 이용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었다. 베트남 구비전승에 의하면 딘방(Dinh Bang) 마을은¹⁴⁾ 리 왕조 고향으로 “방(Báng)나무 숲이 없어지고 따오케(Tào Khê)강의 물이 마를 때 리 왕조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져 온다고 한다. 이 말처럼 리 왕조의 후손들이 780년 후에 베트남에 다시 찾아왔으며, 1994년 리 왕조의 후손인 이용상 왕자의 26세손이 사당을 찾아 조상을 위해 참배하였다. 이로써 전해져 오던 구비전승이 현실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의 전통극 ‘관음티깅’의 서막에서도 ‘까오리’¹⁵⁾는 고려의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해의 연구는 리 왕조의 황자 이용상의 망명, 정착한 이야기, 몽골군을 물리친 공적, 고려 고종이 내린 화산군 작위에 대해 밝히기 위해 『옹진부읍지』, 「수항문기적비」, 「화산이씨세보」를 근거로 삼아 내용이 풍부하다. 특히 강은해는 이용상에 대해 범위가 넓지 않지만 베트남의 구비전승과 전통극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와 베트남 민속과 문화까지 소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용상의 망명과 관련하여 당시 베트남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해 보다 심도 깊고 자세하게 분석·연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편, 베트남의 역사 기록에는 리 왕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반면, 이용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연구자들의 연구는 많지 않다. 구전에 의하면 리 왕조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용상은 고국을 등지고 항해 끝에 고려에 망명했고, 몽골군을 물리친 공으로 화산군에 책봉되었으며 친척들과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할 뿐이다. 그러므로 베트남학자들의 이용상에 대한 연구는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4년 베트남의 역사 연구자 레즈(Lê Dư; ?~1967)¹⁶⁾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쓴 글에서 이용상을 처음 소개하였다. 레즈는 한국 방문 후 베트남에 돌

알고 관음으로 명하였다. 그리고 관음티깅 전통극에서 까오리, 즉 ‘고려’라는 나라의 호칭을 두루 언급하고 있는데, 남녀 주인공의 본고향이 까오리(고려국)라고 몇 번씩 강조하고 있다.

14) 딘방(Đinh Bàng)마을이 李太祖(Lý Thái Tổ, 974~1028)의 고향이며 리 왕조의 사당이 있다.

15)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고려를 까오리(Cao ly)로 표기하였다.

16) Lê Dư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학에 대한 유명한 연구자이고 프랑스 원동학원(극동학원) EFEO(L'Ecole française d'Extreme-Orient)의 연구원이다.

아가는 길에 중국에서 조선 선비를 만나 수백 년 전에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에 레즈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김영건에게서 ‘安南花山君李龍祥の事績’ 자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만난 조선 선비가 얘기했던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인이 이용상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용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베트남에서는 많이 부족해서 레즈의 발표는 이용상이 리 왕조 6대왕 李英宗(Lý Anh Tông; 1136~1175)의 일곱째 왕자이고 1226년에 리 왕조 멸망으로 고려로 망명했고, 고려에서 1253년 몽골군의 침략을 격퇴했다는 정도로 간단하다.¹⁷⁾

1992년에 한국과 통일된 베트남이 공식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양국 간에 다방면에서 교류가 시작되자 차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귀화한 이용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그중에 1994년 『Xung quanh sự tích hoàng tử Lý Long Tường ở nước ngoài (외국에 이용상 황자의 주변 전설)』¹⁸⁾이라는 책이 등장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이용상에 대해 관련 잡지의 기사를 모아 엮어 쓴 책이다. 그러나 이 책도 이용상에 대해서는 한국 자료를 많이 인용해 이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에 귀화한 리 왕조 이용상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96년 베트남에서 만든 『Sự trở về của họ Lý Hoa Sơn - Tiếng gọi cội nguồn(화산 이씨의 돌아가기 - 고향의 소리)』¹⁹⁾이라는 TV 다큐멘터리이다. 이 특집 방송에서 이용상의 후손 화산 이씨가 베트남에 돌아온 것과 리 왕조에 대해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 다큐멘터리 덕분에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한 베트남 측의 학문적 탐구는 판후이레의 연구를 주

17) 1942년에 레즈가 1942년 봄의 Tri tân(知新) 잡지에서 “Cháu 22 đời vua Lý Anh Tông hiện ở Cao Ly” (현재 고려에 있는 리 아영종(李英宗)의 22대 손)이라는 제목으로 이용상에 대해 처음 등장하였다.

18) 이 책은 Nguyễn Khắc Mai(1994), Kinh Bắc(1994), Nguyễn Quang Ân(1994), Phương Chi(1994), Vũ Sơn Thủy (1994) 같이 같이 같이 수록되었다.

19) 유튜브, “Tiếng gọi cội nguồn”, 1996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fgnvU5j39s&t=1682s>)에서 참고

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인 판후이레(Phan Huy Lê: 1934~2018)는 『Tìm Về Cội Nguồn (원점으로 돌아가기)』라는 책 제6장 「화산 이씨: 한국에 베트남의 리씨 성이다」와 「정선 이씨, 한국에서 베트남의 리씨 성을 발견하다」²⁰⁾에서 이용상의 화산 이씨에 대해 소개하였다. 판후이에의 연구는 1994년 5월에 이뤄진 리 왕조의 31대손 이창근과의 만남, 같은 해 10월에 서울에서 진행된 이용상과 후손들에 대한 학술대회 참석에 기반을 두었다. 판후이레는 이용상의 후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통해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용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판후이레는 한국에서 얻었던 자료와 베트남의 역사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용상이 살던 역사적 배경, 고려에 망명한 과정 및 귀화 후의 삶을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한국의 강무학이 1966년에 쓴 『황숙 이용상』 역사소설 역시 베트남어로 번역 출간되었는데, “하노이 천년 기념-역사소설 『황숙 이용상』 출판기념회(2010.6월)”를 통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양국관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황숙 이용상』은 역사소설이라서 어떤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리 왕조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이용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이후에 이용상의 후손들이 베트남을 다시 찾으려 하는 과정과 그들의 직업, 삶에 대해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많이 기사화했는데, 그중에 베트남의 젊은이(tuoi trẻ)신문은 2006년 11월 13일에 ‘Đi tìm dòng họ Lý ở Hàn Quốc (한국에서 리씨 성을 찾기)’²¹⁾ 제목으로 이용상에 대해 자세하게 썼다. 이 신문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처음 부분은 ‘Hoàng tử ra đi (황자 떠나기)’로 베트남과 외국의 자료를 통해 이용상이 베트남을 떠나야 했던 역사 배경과 망명길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800 năm hoài cố hương (800년 동안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분으로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하고 몽골군을 격퇴하는 공을 세운 업적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Đừng gọi tôi là người nước ngoài (외국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이라는 부분으로 이용상의 후손인 이상준(Lý Tường Tuấn)을 만나서 이용

20) 판후이레, 『Tìm Về Cội Nguồn (원점으로 돌아가기)』,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1998, 제6장, 893~900쪽.

21) 베트남 젊은이 신문, “Đi tìm dòng họ Lý ở Hàn Quốc_ Kỳ 1: Hoàng tử ra đi”, 2016년 11월 13일.

상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베트남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경제에 투자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신문의 특집 기사는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 자료를 잘 고증했고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이용상 후손들을 만나서 역사적으로 망명 후 귀화한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신문 기사 내용은 보다 풍부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이용상의 화산 이씨 연구들은 한국보다 더 늦게 이루어졌는데, 연구들은 종합적으로 보면 대부분 한국 자료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소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역사 사료에서 이용상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리 왕조에 대한 기존의 사료에서 이용상의 망명한 과정을 제한적이거나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이용상과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역사의 단면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상과 그 후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관계에서의 역할을 평가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이용상과 관련하여 베트남 리 왕조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왜 타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에 있는 자료들 중 『大越史記全書』, 『越南史略』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용상의 고려 정착 과정과 화산 이씨의 형성에 대해 선행 연구들과 역사 자료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이용상의 후손들이 베트남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특히 어떤 절차를 통해 리 왕조 후손으로 인정받고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용상의 후손들은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리 왕조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서의 역할과 양국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베트남과 한국 각각의 언론 보도를 통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의의를 파악하려고 한다.

II. 이용상의 고려 망명과 화산 이씨의 형성

1.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교류 관계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2020년 현재까지 28년이 흘렀다. 그동안의 외교적 노력을 보면 200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2009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며 한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3명의 대통령(2009년 이명박, 2013년 박근혜, 2017년과 2018년 문재인)과 베트남에서는 2명의 국가주석(2009년 Tran Duc Luong, 2011년 Truong Tan Sang)이 상호간 국빈 방문이 있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文在寅)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학살에 관해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²²⁾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한-베 미래지향적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후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등이 여러 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은 베트남과 15번째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베트남에 4,110개 프로젝트, 377억 불을 투자하여 일본을 제치고 제1위 투자국으로 베트남에 한류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²³⁾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양국의 문화의 많은 유사점과 함께 긴밀한 교류도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는 양국은 같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반도 국가라는 점과 각자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

22) 동아일보, “베트남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불행한 역사 유감의 뜻”, 2018년 3월 24일.

(출처: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80323/89253424/1>)

23) FTA, 강국 KOREA, (출처: <http://www.fta.go.kr>).

화를 지닌 국가라는 유사성이다. 더욱이 베트남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한국과 국경이 접해 있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국은 역사적으로 서로 침략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양국은 우호적인 감정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지리적으로 볼 때 베트남과 한국의 중요한 점은 양국의 영토가 베트남은 중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 한국은 중국의 동북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 등 잦은 외세에 침략을 당하였다. 36년간 일제 지배를 받았던 한국처럼 베트남은 87년간(1858~1945) 프랑스 통치 아래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외세에 저항하고 강한 애국심으로 자주적인 독립 국가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과 경계선을 같이 하는 인접국으로써 중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문명과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원하는 이중 언어와 이중적 문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적 면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이 3교(유교·불교·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불교가 영향력이 강했으나 이는 점차 유교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대 한국의 유교 사상은 민족정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사상에 대하여 유교를 흡수했는데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 ‘대학(大學)’을 세우고 고려 시대까지 유교의 기본윤리인 삼강오륜은 한국 전통사회의 일상적 실천원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효경>이 중요시되면서 효 사상이 일찍부터 확립되었으며, 충의 규범은 국가 성장기의 강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다. 그리고 유교의 덕목이 대중 속에 널리 확산되어 사회윤리로 정립되면서, 전통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가치관의 근거로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언어적 면에서 베트남과 한국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양국의 모국어는 서민층이 실생활에 사용되고, 반면 한자는 행정, 외교, 인재 선발 등 주로 국가 통치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면서도 양국은 한자로부터 자기 나라의 글자를 창안하였다. 베트남 경우는 한자의 음과 기호를 빌려 중국 한자와 베트남 한자로 병용 표기하는 문자체계인 ‘쯔놈’(chữ Nôm; 字喃)을 만들었다. 한편, 한국 경우는 한자를 이두식으로 표기한 한자도 있었지만 이웃한 중국의 언어인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백성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1446년 9월 조선 시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을 창제하여 반포하고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보면 '양국은 중국이라는 보편성을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특수성을 유지해야 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중화적 질서 속에 있으면서도 자국의 영토적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서로 상충되는 이중의 어려움을 떠안고 있었다는 데서 각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²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베트남과 한국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지만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조공과 책봉의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이었기 때문에 양국 교류는 주로 비공식적으로 사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자라는 공동의 문어를 유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양국의 사신들 간에 시와 필담을 통해 혹은 중국에서 구입한 도서를 통해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었다. 양국 사신들의 시와 문학, 그리고 필담을 통한 교류는 1597년 이수광과 馮克寬(Phùng Khắc Khoan; 1528~1613)의 만날 때부터 1868년 阮思儻(Nguyễn Tư Giản; 1823~1890)과 남정순의 만남까지 약 371년 동안 10회 이상 양국 사신들의 (베트남: 12명, 한국: 21명) 만나서 시와 문학 등 모두 92여 개를 교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시가 82개, 문학이 11개가 있었다고 한다.²⁵⁾ 그전에 莫挺之(Mạc Đĩnh Chi; 1272~1346)가 조공이 갔을 때를 염두에 둔다면 이보다 양국의 교류는 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양국 사신들은 조공과 책봉을 위해 중국이란 매개를 통해서 만남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사신들의 시와 문학을 통한 교류로 한국과 베트남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은 간접적인 외교관계지만 양국 사람들은 서로 우호적으로 교류를 하였다.

우리는 과거 기록에서 김복수이라는 사람이 조난을 당했을 때 베트남 사람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베트남에 표류했던 제주도민 김복수의 전설은 睦萬中(목만중; 1727~1810)이 1793년 지은 『金福壽傳(김복수전)』에서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24)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2009, 159쪽에 참고.

25) Trịnh Khắc Mạnh, 「Khảo sát thơ văn xướng họa của các sứ thần hai nước Việt - Hàn thời kỳ trung đại (중세기에 한국과 베트남의 사신들의 시로 화답을 조사)」, Tạp chí Hán Nôm, số 2 (117), 2013, 17~33쪽.

“김복수라는 사람은 제주 김녕촌(金寧村) 사람이다. 대대로 어전의 명부에 올라 있었다. 복수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어머니를 잘 모셨다. 몸이 매우 건강했고 문자를 대충 이해했다. 집이 바다 가까이에 있어서 물고기 잡고 나무해서 생계를 꾸려 갔다. 어느 날 태풍으로 타고 있던 배가 표류해 아흐레 낮밤을 지나서 해안가에 도착했다. 함께 배를 탄 사람은 다 죽고 복수도 병이 나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를 발견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데려갔다. 복수가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安南(베트남)이라고 했다.”²⁶⁾

베트남 사람의 구조를 통해 김복수가 베트남에 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거나 머슴살이를 하여 먹고 살았다. 마침에 琉球(류큐)의 진주를 캐는 여가 임춘향(林春香)이 표류하여 안남(베트남)에 이르렀는데 복수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짝을 맞춰서 같이 살았고 아들과 딸 여섯 명을 낳았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복수가 늘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곧 동쪽을 향해 곡을 하였다. 어느 날 복수가 어머니를 여읜 꿈을 꾸었고 통곡하였다. 꿈에서 깨자 징조가 온 것처럼 신위를 설치하고 發喪하였는데 날마다 두 번 상식을 올려서 삼년상을 마쳤다. 冠禮를 조선과 똑같이 하였다. 이를 보면 안남 사람들이 복수가 효자라고 조선은 참으로 예의의 나라라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안남 사람들이 복수의 상례를 많이 따라 하였다. 사실 베트남 전통적인 관혼상제 예법을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상례 예법은 복수의 어머니 상례처럼 베트남에 아직도 남아 있고 돌아가신 사람이 있으면 신위를 설치해서 발상하고 돌아가신 후 49여 일 동안 날마다 밥을 오리며 삼년상을 치른다.

안남에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 복수는 행실과 의리가 고매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어느 날 안남 국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려 할 때 복수를 대동하여 같이 일본에 가라도 명하였다. 일본에 간 복수는 동향을 만났고 제주도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떠올렸다. 석주명(石宙明; 1908~1950)의 『제주도 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1968) 아래와 같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26) 金福壽者，齊州金寧村人也。世隸吏籍，福壽幼孤，善事母，頗壯健，略通交字。家近海，資漁探爲生。一日颶作，舟漂晝夜閣岸，舟同者皆死，福壽亦病不能興，人有見而哀之，挈之以歸，問其地安南云。(안대회, 「餘窩 睦萬中의 표류인 전기 「金福壽傳」 연구 -제주 민요 <오돌또기>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68호, 2014, 63쪽에 참고.)

“제주 출신 김복수란 사람이 안남(安南)에 표류하여 역시 그곳에 온 류큐(琉球) 여자 임춘향(林春香)에게 강가를 들었다. 유자생여(有子生女)하고 살다가 뒤에 일본 가는 사자(使者)를 따라서 오사카(大阪)로 가 객관(客館)에서 구라파(仇羅婆) 국사(國使)를 만나 방서(方書) 12권과 같이 사단(吉伊斯: 가톨릭의 일파) 도(道)를 듣기도 하고 마침 류큐 사자를 만나니 자기 마누라의 오라범이라 그 누이동생의 소식을 전하고 일이 끝난 후 다시 안남(安南)으로 가다가 한라산을 바라보고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져서 담수(淡水)를 얻어온다는 핑계로 혼자서 작은 배로 제주에 돌아왔는데 늙도록 류큐(琉球) 마누라를 잊지 못하여 가끔 산에 올라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²⁷⁾

복수는 안남 사신에 따라 일본으로 갔다가 제주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40년 동안 안남에 살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오니까 사람들이 복수 집에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안남에 대한 물어봤다. 이에 복수는 “안남은 천하의 남쪽에 있고, 아침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서늘하다. 안개가 여러 달 걷히지 않기도 하고 오곡과 과일 등 곡물은 일 년에 두 번 익는다. 형벌이 대단히 지나쳐 소를 죽인 죄는 사람을 죽인 죄와 같아. 태형 오십 대를 맞으면 간혹 죽기까지 한다.”²⁸⁾라고 말하였다. 김복수가 베트남에 대해 묘사하는 것들이 베트남의 그 당시와 똑같으며 특히 1042년 리 왕조는 “힝트외레(bộ luật hình thư)”를 만들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베트남은 농경사회 중심으로 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복수는 제주도에 돌아온 후에는 베트남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을 밤낮으로 그리워하여 때때로 산에 올라가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아래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

“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동그대당실 동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 머리로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27) 석주명, 『제주도 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보진재, 1968, 346~347쪽.

28) 안대회, 「안남에 표류한 제주도민 김복수의 전기 두 편」, 『문헌과 해석』, 83권, 1호, 2018, 109쪽에 참고.

복수는 이 노래를 통해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풀어냈는데 나중에 제주도에 서 “오돌또기”란 대표민요로 제명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김복수의 베트남에 표 류한 사건을 볼 때 양국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문화교류가 있었으며 좋 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다.

2. 구비전승으로 본 이용상의 망명과 화산군 봉작

레 왕조(黎朝; 980~1009) 마지막 왕인 黎龍鋌(Lê Long Đĩnh; 986~1009)이 죽 자 제위를 둘러싸고 혼란이 일어났다. 이때 李公蘊²⁹⁾은 신료들에게 추대받는 형식 으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로써 레 왕조가 멸망하고 리 왕조[李朝]가 창건되었다. 1009년 10월 리 태조가 된 李公蘊(Lý Công Uẩn; 974~1028)은 연호를 順天 (Thuận Thiên)으로 하고 수도를 昇龍(지금 하노이)으로 정하였다. 이로부터 리 왕 조[李朝]시대가 시작되고 9대 왕까지 이어지며 216년 동안 통치했던 베트남 최고 의 장기집권 왕조이다.

1천년 가까이 지속된 중국과의 지배-종속관계를 끊고 베트남은 939년 吳權 (Ngô Quyền; 891~944)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은 지역에 할거하던 지배자들에 의해 수시로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기가 지속되었다. 리 왕조(1009~1225)는 이런 혼란기 속에서 안정적인 정치를 유지하였던 최초의 왕 조이다. 하노이를 수도로 정하고 용이 하늘로 날아간다는 뜻인 昇龍을 수도로 삼 았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상징인 용에 빗대어 인도차이나에서 리 왕조는 또 다른 용으로 새로운 건국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대립적이었던 리 왕조는 베트남 역사상 꽤 오랜 기간 왕위를 지켰으며, 영토보전과 확장에 힘을 기울이면서

29) 『大越史記全書』에 의하면 “성은 리, 이름이 공원(公蘊), 고 파이(châu Cổ Pháp 현재 박닝성) 사람이고, 어머니의 성은 밤(范)이다. 어느 날 디에선(Tiêu Sơn) 절에 놀러 갔고 여기에 신과 통 교하여 974년 2월 12일에 公蘊이 태어났다. 公蘊이 장성할 때는 레 시대에서 벼슬을 했고 Lê Ngọa Triều(黎臥朝)죽을 때 스스로 왕으로 세우고 수도는 Thăng Long(昇龍; 하노이)으로 옮 겠다. 公蘊이 18년 동안 왕위를 지켰고 55세(974~1028)의 삶을 누렸다. 왕이 하늘의 명령에 복 종하면서도 인재를 잘 썼으며, 관대하고 인자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나라 이름을 大越(Đại Việt)이라고 정하였다. 부연한다면 베트남 최초의 영속왕조인 리 왕조는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집권화로 국가체제를 다졌으며 안정적인 內治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리 왕조 쇠퇴는 李高宗(Lý Cao Tông; 1173~1210)이 1176년에 왕위에 올랐을 때였다. 베트남의 왕조들은 장자한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李英宗은 장자 李龍昶(Lý Long Xương; 1151~?)한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여섯째인 롱짚 황자(리 왕조의 7대 왕 李高宗)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³⁰⁾

1175년 4월 李英宗의 위독하자 황후는 李英宗에게 자기 아들 李龍昶를 다시 태자로 책봉하고 왕을 세우라고 요구했는데, 李英宗은 이를 물리치고 蘇憲誠(Tô Hiến Thành; 1102~1179)에게 롱짚 황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부탁하였다. 그때 롱짚은 3살 밖에 안 되었기에 재상 蘇憲誠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蘇憲誠은 롱짚 황자를 왕으로 세운 후 대리통치를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왕조의 안전과 평화를 계속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李高宗은 성장 이후 왕권을 잡았는데 정무에 집중하지 않고 사냥을 좋아하고 궁전을 여러 개 신축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졌다. 또한 중국인들이 북쪽의 국경 인근에서 말쟁을 일으키고 남쪽에서는 참파가 공격하고 나라 안에는 도적떼가 일어났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은 국정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란군마저 발생하여 나라는 어지러워졌다.

1207년에는 段尚(Đoàn Thượng; 1181~1228)과 段主(Đoàn Chủ; ?)가 반란을 일으키자 范秉彝(Phạm Bình Di; 1150~1209)와 譚以蒙(Đàm Dĩ Mông; ?)은 李高宗의 명을 받들어 이를 토벌하였다. 段尚在 다른 장수인 范猷(Phạm Du; ?~1209)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에게 투항하고 范猷의 권유로 리 고종은 도안트엉을 사면하였다.

1208년, 知乂安軍事 范猷가 段尚과 段主의 지원을 받아 망명한 무리들을 모아

30) 『大越史記全書』, 9권, 2부에서는 ‘李龍昶 황태자는 정식 왕후의 아들이라서 태자로 책봉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시 李英宗은 자원비(Từ Nguyên phi)를 총애하여 황후가 질투하였다. 황후는 자원비가 죄를 짓도록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아들 李龍昶를 끌어 들었다. 그런데 자원비가 이를 알고 바로 李英宗에게 이 사건을 말하였다. 李英宗은 분노하여 李龍昶에게 궁중비빈과 통간한 죄로 폐출 명령을 내렸으며, 李龍昶은 保國王으로 강등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였고, 반란의 음모를 꾀하였다. 范秉彝는 李高宗의 명을 받아 이를 토벌하여 그를 축출하였고, 가산을 적몰한 뒤 가택을 불태웠다. 그런데 范猷가 사람을 조정이 있는 탕롱(하노이)에 보내 조정의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范秉彝가 법을 엄혹하게 행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죽인다고 무고하였다. 그러자 范秉彝는 조정에 표를 올려 자신이 입조하여 신원하겠다고 요청했으며, 李高宗은 그의 말을 믿고 范秉彝를 불러 수도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에 范猷는 范秉彝보다 먼저 수도로 들어와 李高宗과 만나 대화하였고, 李高宗은 范秉彝에게 심히 분노하였다. 范秉彝는 이 사실을 알면서 탕롱으로 돌아갔다가 아들인 范輔(Phạm Phụ; ?)와 함께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范秉彝의 部將 郭卜(Quách Bốc; ?)은 范秉彝가 하옥된 것을 알자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공격해 깨뜨리고 그를 구출하고자 하였다. 李高宗은 郭卜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范秉彝를 불러 접견하였다. 이 때 范猷와 동생 范京은 御堂(어당)에서 御檜(어창)으로 范秉彝 부자를 찢어 죽였다. 그러자 李高宗은 태자 李昊崑(Lý Hạo Sâm)을 데리고 황성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이와 같이 왕이 국정을 돌보지 않고 충신의 언행에 대해 의심을 하고 간신의 말을 믿은 것은 결국 왕조의 패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郭卜之亂 때문에 리 왕조의 왕권은 더 약해졌고 전 씨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다.

리 왕조의 패망과정에는 陳守度(Trần Thủ Độ)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郭卜이 忱 황자(Hoàng tử Thảm)를 왕으로 삼았을 때 도망친 崑 태자는 陳李(Trần Lý) 집에서 살았고 陳李의 딸과 결혼하였다. 陳李 집은 대대로 어업에 종사했으며 어업으로 부를 쌓은 많은 사람들이 陳李에게 의탁하였으며, 그들을 모아 수도로 가서 郭卜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그 후 陳李는 李高宗과 崑 태자를 정무에 복귀를 시켰다. 당시 李高宗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외척인 陳李 힘을 빌렸기 때문에 陳李는 리 왕조에서 그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다. 李高宗은 1년 후인 1210년에 병사하고 35년 동안 통치 막을 내리고 崑 태자가 왕위를 계승하여 李惠宗이 되었다.

1210년 10월 즉위에 오른 李惠宗(Lý Huệ Tông; 1194~1226)은 陳氏(陳李의 딸)를 원비로 삼았다. 이를 계기로 李惠宗 때부터 국가 권력이 陳 시대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陳李가 죽은 후에 李惠宗은 陳李의 차남 陳嗣慶(Trần Tự Khánh;

?~1223)를 彰信侯(창신후)로, 전 원비의 숙부 蘇忠詞(Tô trung Từ; ?~1211)를 太尉(태위)로 책봉하였다. 1213년 安全皇后(An Toàn hoàng hậu; 1194~1226)가 전 원비를 괴롭히자 陳嗣慶가 군인들을 데리고 조정에서 가서 전 원비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李惠宗은 陳嗣慶를 의심해서 전 원비를 宮女(궁녀)로 강등시켰다. 이를 알게 된 陳嗣慶는 李惠宗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李惠宗은 더 의심하여 황태후와 같이 랑선(Lang-son)성으로 가 버렸다. 이때부터 태 황후는 陳嗣慶의 충성심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陳氏를 욕하면서 음식에 독을 넣어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이를 안 李惠宗은 陳氏를 보호해주었다.

李惠宗은 나중에 陳氏를 順貞皇后(Thuận Trinh hoàng hậu)로 책봉하였고 그 후 황후의 사촌 동생 陳守度(Trần thủ Độ)를 殿前指揮使로 삼았다. 이에 따라 陳守度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데, 李惠宗이 국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인 陳氏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陳氏의 주장인 陳守度가 리 왕조의 쇠퇴를 판단하고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계획하였다.

마침 李惠宗이 병에 걸렸는데 태자가 없었다. 딸은 2명이 있었는데 장녀 順天公主(Thuận-thiên công-chúa)은 陳柳(Trần Liễu; 陳承의 장자)와 결혼했으며, 여동생 昭聖公主(Chiêu thánh công-chúa; 이름이 Phậ-kim 佛金)은 7살밖에 안 되었으나 1224년 10월에 李惠宗이 昭聖公主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眞教(chùa Chân Giáo)절에 출가하였다.

昭聖은 베트남의 역사상 유일한 여왕 李昭皇(Lý Chiêu Hoàng)이 되었지만 어렸기 때문에 실권은 陳守度에게 넘어갔다. 『大越史記全書』에 의하면 ‘昭聖公主가 (昭皇王) 왕위에 올랐는데 실권은 陳守度에 있었다. 리 왕조를 전복시키기 위해 陳守度가 順貞皇后(Thuận Trinh hoàng hậu; 순정황후)와 결합해서 昭皇여왕의 시종을 들었다. 陳守度의 조카 陳熨(Trần Cảnh; 陳太宗 1218~1277)이 正首(정수) 직위로 받고 선달 만에 昭皇王은 陳熨이랑 결혼하여 왕위를 남편에게 양위하였다.’³¹⁾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216년 동안 통치했던 리 왕조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리 왕조의 황족은 소황과 언니 順天皇后(순천황후)와 이용상을 제외하고, 모두 陳守度에 의해 阮(Nguyễn)이란 성씨로 강제개명 되거나 살해되었다.

31) 『大越史記全書』, 9권, 2부.

陳 왕조는 왕권을 잡은 후에 리 왕조의 후손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³²⁾ 이에 대해 『大越史記全書』에는 1225년 8월 10일에 眞教 절에서 陳守度는 李惠宗을 죽였다. 사사한 이유는 李惠宗이 시장에 구경하러 나왔는데, 백성들은 李惠宗 주변에 몰려들었고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陳守度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李惠宗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眞教 절에 보냈다. 어느 날에 陳守度가 절을 지나가다가 잡초를 뽑은 李惠宗을 보고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 끝까지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李惠宗은 “당신의 말을 내가 이해했다.”³³⁾라고 답하고 절 뒤 정원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李惠宗이 죽은 후에 陳守度는 李惠宗의 황후와 결혼하였다.

陳 왕조의 시초 陳煚(Trần Cảnh)은 나이가 어려서 삼촌인 陳守度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퇴위한 왕과 인척 관계가 있는 李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阮 성으로 바꾸게 한 속셈은 사람들이 리 왕조를 잊게 하여 역사에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³⁴⁾

李惠宗의 죽음과 연이은 왕족의 숙청은 이용상에게 위기감을 부여했을 것이며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베트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면에는 비록 陳氏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할 운명이지만, 리 왕조의 정신과 혈통을 지켜야 죽어서도 조상을 대할 수 있다는 베트남의 오랜 전통적 사고에서 왕족의 자존에 대한 마지막 선택의 길로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용상의 망명에 대해 『베트남 역사 개론(Đại cương lịch sử Việt Nam)』에서는 “惠宗이 죽은 후에 陳守度는 惠宗의 궁녀와 공주들을 추장들에게 보냈다. 李

32) 『越南史略』, 1권, 6부, 6장에서 “1232년 박닝성에서 리 왕조의 先后(선후)제사가 있을 때 陳守度는 부하들한테 땅 밑에 웅덩이를 파고 위에 초가집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를 모르는 리 왕조의 종친들은 제사를 하러 왔다가 모두 웅덩이에 빠져서 산 채로 묻혔다. 陳守度가 리 왕조 종친들을 다 죽여 버렸고, 리 왕조에 대한 기억을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 阮 왕조의 선조는 陳李(Trần Lý)의 이름을 구실로 삼아서 백성들 중에 李씨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阮(Nguyễn)씨 성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기록했고 백성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핏줄을 지켜내기 위해서 李 성은 모두 다 阮 성으로 바뀌어야만 하였다.

33) 『大越史記全書』 4권, 1부.

34) 베트남에서는 李(Lý) 성을 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현재 베트남 성씨 중 李 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0.5%도 채 안 된다.

성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阮 성으로 바뀌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리 왕조의 친척들이 외국에 가기로 선택했고, 이용상도 고려에 망명했다.”³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용상은 망명지로 고려라는 제3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리 왕조는 남쪽에 있는 참파(지금의 다낭, 호치민 지역)나 앙코르(캄보디아)는 리 왕조에서 특별한 적도 있었고 항상 대치하여 경계하던 나라였다. 북쪽의 송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교적으로 좋지 않았을 뿐더러 왕위를 찬탈한 陳守度가 조공관계를 통해 왕조 찬탈의 당위성을 송나라에 인정받기 위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陳守度로서는 리 왕조의 실세였던 이용상의 제거를 통해 백성들에게 왕조 탈취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陳 왕조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송나라에게 이용상을 받아주지 말 것과 본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이용상의 망명을 강력히 방해했다고 봐야 한다.

한편, 말레이지역은 참파와 외교적으로 친밀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정식 교류는 없었으나 중국으로 온 조공 사신을 만나기도 하였고, 송나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무역을 하였던 고려를 망명처로 염두에 두고 긴 여정을 떠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고려는 매우 개방적인 국가였으며 국제무역항인 예성강의 벽란도까지 외국 선박들이 왕래하였다.

이용상의 망명한 길에 대해 정수일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계절풍을 타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와 닿은 곳이 바로 한반도 서해안에 자리한 옹진반도의 화산(지금은 북한에 속함)이다. 비행기로도 5시간이나 걸리는 약 3,600km의 거리다.”³⁶⁾라고 하였다.

이용상의 망명한 길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이용상은 뱃길로 베트남을 떠나서 1달 후에 태풍 때문에 대만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용상의 왕자 리롱히엔(Lý Long Hiên)이 몸이 아파서 계속 갈 수 없게 되자 아들 리롱히엔과 부인과 수종(시중을 드는 사람) 200명을 남겨두고 대만을 떠나 계속 항해하여 고려 북쪽 황해에 도착하였다. 한편으로 리롱히엔이 대만에 정착하고 대만 대통령 李登輝(Lý

35) 『베트남 역사 개론』, 7장, 172쪽에서 재인용.

36) 정수일, 앞의 책, 2005, 152쪽.

Đặng Huy : 1923~2020)도 이용상의 후손이라는 가설이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강은해의 연구에서 고려는 이주민에게 관대했던 국가였고 외부와의 교류 또한 활발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으로 묶어지는 중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4국 사이에는 종교·문화적으로 소통과 무역을 통한 교류가 많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망명 또한 가능하였을 것이고, 타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³⁷⁾

이용상의 망명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볼 때 선박을 이용하여 바닷길로 망명에 나섰다. 그 출발점은 베트남의 번돈 항구³⁸⁾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은 리 왕조 李英宗이 1149년에 번돈 항구를 건설했으며 이용상은 李英宗의 7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번돈 항구를 잘 알고 가본 적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용상은 추격해오는 세력들을 따돌리고 항구를 통해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다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베트남의 북쪽은 거대한 산이 많아 육로로의 이동이 험난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도망자의 입장에서 추적을 비교적 쉽게 따돌릴 수 있는 뱃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리 왕조는 국경을 같이 하는 인접국들과 왕래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말레이시아, 필리핀, 멀게는 대만이나 일본 등과 뱃길을 통해 해상교역을 해왔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바닷길이 익숙하고 편한 상황이었다. 누구나 교역 길을 나설 때면 안전한 번돈 항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용상도 베트남을 떠날 때 부왕이 건설한 번돈 항구에

37) 강은해, 「고려무신 이의민의 역사와 베트남 왕손의 전설」, 동북아문화연구, 제29집, 2011, 118쪽.

38) 번돈(Vân Đồn)항: 광닌(Quảng Ninh)성 하롱(Hạ Long)만의 동남부에 있다. 배가 정박하기 편리한 자연지형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사료에 근거하여 고고학적 조사와 함께 五銖錢과 중국 漢代의 도기가 발견되어 이 지역이 기원 초부터 수세기 동안 상선들이 머물렀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다이비엣(Đại Việt/大越國)시대에 들어 리(Lý)왕조의 아잉통(Anh Tông, 英宗)은 각국 상선의 상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1149년에 정식으로 항구를 개설하였으며 일본,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과의 교역관계를 위한 국제적인 항구를 조성하였다.

무역항 번돈(Vân Đồn)은 리(Lý)- 쩐(Trần)- 후레(Hậu Lê) 등 세 왕조 동안 줄곧 융성하였으며 주로 거래된 품목은 리 왕조의 옥색자기, 쩐 왕조의 갈색자기, 레 왕조의 청화자기였다. 번돈(Vân Đồn)항 시기부터 다이비엣(Đại Việt/大越國)도자기는 일본, 중국, 동남아 그리고 동유럽 각국에 팔려 나갔는데 활발한 상거래 분위기를 이루었는데, 번돈(Vân Đồn)항의 융성은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베트남의 해상 교역과 수중 문화유산, 딘 티 레 후옌 Dinh Thi Le Huyen, 동남아시아 해양문화유산과 해상실크로드, 2017, 국제학술대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 뱃길로 고려에 갔다고 할 수 있다.

이용상이 바닷길로 베트남을 탈출해서 마침에 황해도 옹진군에 도착하였다. 「수항문기적비」의 기록에 의하면 옹진군에 온 이용상은 진산에 있는 동굴에 몸을 숨겨 살았는데, 그 동굴을 ‘徽子洞’³⁹⁾이라고 한다. 미자동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徽子⁴⁰⁾가 조상에게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용상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고려로 망명 시 미자를 비롯한 3인의 뜻을 이루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고려로 망명하기 전에 이용상은 陳守度の 눈을 피해 몰래 강박에 가서 단방묘당에 참배하고 사당에 있는 리왕조의 위패들과 제사를 사용하는 제기들은 갖고 갔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려 진산에 있는 동굴을 ‘미자동’이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이용상의 탈출 동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고려에 몸을 정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용상이 고려 옹진군에 당도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그를 어떻게 대접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甕津府邑誌』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花山君 李龍祥은 安南 國王의 아우이다.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자, 與族君茲과 함께 祭器를 안고 바다에 떠서 海陽道 甕津縣에 도착하였다. 즉 고려 고종 때라, 외국의 왕손임을 불쌍하게 여겨 花山君으로 封하였다. 마침 몽골이 쳐들어오자, 군이 쳐서 물리치고 객사 앞에서 항복을 받았으므로 그 문을 受降門이라 불렀고, 그 현판을 친히 썼다고 한다.”⁴¹⁾

고려 고종은 이용상 일행들을 받아주고 정착하게 해주었고 이에 따라 이용상과

39) 徽子洞: 徽子洞 在南平鄉 交趾里 花山陽(이용상 황자를 은나라 충신 미자에 비유, 그가 사는 동리를 미자동이라 하고, 화산 남쪽에 있다).

40) 徽子(?~?)는 중국 상나라의 왕족이자, 서주의 제후국인 송나라의 초대 공작(재위: 기원전 1038년 ~ 기원전 1025년)이다. 『논어』에서는 미자, 기자, 비간 세 사람을 ‘은나라의 어진 세 사람[殷三仁]’으로 부른다. 주왕이 주지육림의 방탕한 생활과 폭정을 계속하자 왕실의 만형인 미자는 실정을 멈추라고 여러 차례 간언했으나 매번 무시나 위협을 당하자 주왕에게 천명이 떠난 것을 알고 禮樂을 관장하는 관리들과 제사 도구 등을 가지고 왕실 가족들과 함께 본인의 封地로 피하였다.

41) 花山君李龍祥安南國王之弟也 國將亡 與族君茲 拘祭器 浮海至于海陽道甕津縣 卽高麗高宗時也 憐外國王孫 仍封花山君 適值蒙古來侵 君髓平之 受降於客舍前 號其門受降門 親題板額云。(『甕津府邑誌』, 忠節.)

인척들이 옹진군에 살게 되었다. 한편, 강무학의 역사소설 『황숙 이용상』에서는 그 때 옹진에는 도적들이 횡행하고 옹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이용상이 나서서 도적들을 몰아냄으로써 옹진 사람들은 이용상에 대한 좋은 인상과 후한 대접을 했다고 쓰고 있다. 이 또한 이용상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고려에 정착한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화산 이씨의 형성과 발전

황해도 옹진군에 살 때 이용상은 옹진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무술을 가르치면서 지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253년에 고종(안효왕)시대에 몽골군은 5 번째 고려에 침입하였다.

고려와 몽골의 외교 관계는 1218년에 고려를 침략한 거란의 군사를 강동성에서 양국군이 협공하고 다음 해 성을 함락한 뒤 맺어진 형제맹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몽골은 여러 차례 사절단을 보내 많은 양의 공물을 요구하였다. 몽골은 사전 약정에 의거하여 10명 전후의 사신단을 동진을 경유하여 고려에 보냈다. 당시 칭기즈칸이 서방 원정 중이어서 그의 아우 옷치긴이 監國하고 있었는데 탐학으로 과다한 공물 요구와 오만무례한 행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⁴²⁾

그 이전 고려가 거란·송·금 등 중국의 여러 왕조와 사대를 하면서 방물을 보냈어도 그것은 정성을 담은 것이면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고려는 공물을 따지며 압박하는 몽골에 반감을 품게 되었는데, 1225년 고려에 왔던 사신 著古與(자구르)가 귀국 중에 압록강변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 고려와 몽골의 통교가 끊기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高麗史』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몽골의 사자가 서경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갈 때 공물이 수달피만 가지고 나머지 세

42) 이윤섭, 『역동적 고려사-몽골 세계제국에도 당당히 맞선 고려의 오백 년 역사』, 펴냄, 2004, 281 쪽.

포(細布) 등의 물품은 모두 버리고 가다 중도에 도적에게 피살되었는데 몽골에서는 도리어 우리를 의심하므로 드디어 통교가 끊기게 되었다.”⁴³⁾

이 사건 후에 몽골은 고려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몽골의 아시아 지배 전략에 따라 撒禮塔(사르타이)가 지휘하는 몽골 군사가 금 원정 계획의 일환으로 요동 지방을 공략하고 이듬해인 고종 18년(1231) 8월 압록강을 넘어 고려 영내로 진입했다고 한다.⁴⁴⁾ 이로부터 약 29년간 9차례에 걸친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개시되었다. 몽골군의 침입에 대한 『高麗史』 권24, 高宗 40年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름 4월 경술에 北界兵馬使로부터 북방 오랑캐의 군사 30여 명이 침입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갑오에 原州의 백성으로 몽골에 납치되어 갔던 자가 돌아와 말하기를 “阿母侃과 洪福源 등이 帝에게 가서 ‘고려가 거듭 성을 쌓았는데, 육지로 나와 귀순할 뜻이 없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帝가 皇弟 松柱에게 병사 1만을 거느리고 東眞을 거쳐 東界로 들어오게 하고, 아모간과 흥복원 등은 자기 부하 군사들은 거느리고 北界로 달려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다 大伊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7월)갑신에 北界兵馬使로부터 몽골병이 鴨綠江을 건넜다는 보고를 받고 곡 5도 按察使 및 3도 巡撫使에게 공문을 띄워 빨리 주민을 거느리고 山城과 海島로 들어가 지키게 하였다..... 8월 무신에 甲串江에서 水戰을 익혔다..... 몽골병이 西海道 椽山城을 함락시켰다..... 이때 也窟이 土山에 있었는데,..... 몽골병이 東州山城을 함락시켰다. (9월) 병신에 몽골병이 春州城을 도륙했다. (10월) 기유에 몽골병이 楊根城을 공격하니, 防護別監 尹椿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항복하였다..... 갑인에 몽골병이 天龍山城을 공격하였다..... 병인에 몽골병이 襄州를 함락시켰다..... 이달에 也窟 등이 忠州를 포위해 침공하니, 前 少卿 鄭壽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京山府로부터 적에게 가서 항복하였다..... (11월) 也窟이 충주에서 병에 걸렸는데 점쟁이가 말하기를,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也窟이 아모간과 흥복원 등을 남겨두고 충주를 지키게 한 다음 정에 기병 1천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돌아갔다.(12월) 임술에 충주에서 급보를 올려, 몽골병이

43) 『高麗史』, 世家 高宗 12년 정월 계미 “癸未 蒙古使 離西京渡鴨綠江 但齎國贖獮皮 其餘紬布等物皆棄野而去. 中途 爲盜所殺 蒙古反疑我. 遂與之絕.”

44) 이운섭, 앞의 책, 2004, 284쪽.

포위망을 해체했다고 하였다.“⁴⁵⁾

옹진은 개경이나 강화도와 가까이 있으니 몽골군의 위하는 더욱 그곳에 집중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기현은 “그때 이용상이 옹진군의 동쪽 화산에 살고 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을 알게 돼서 옹진의 현령과 군대에게 대인 방책을 가르쳤다. 이에 ‘몽골 군사를 깊숙이 끌어들이 지구전을 펴면 적은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용상은 3면에 토성으로 성벽을 쌓게 하고 전면에 목책을 높이 세웠다. 또 동굴을 깊숙이 파낸 후 땀감과 나무를 비축해두고 적이 대포를 쏘면 함께 쏘고, 성벽을 넘으면 돌과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철저히 방비하였다.’⁴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몽골군의 공격은 5개월 동안 이어졌으나 옹진군을 무너뜨리지 못하여 드디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몽골군은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 이용상이 있다고 여겨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몽골군이 항복의 선언을 통해 이용상에게 금으로 만든 예물 상자를 보냈는데 그 상자 안에서 5명의 자객이 숨겨 있었다. 이용상이 이 예물을 열면 자객들이 바로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용상이 예물 상자 안에 자객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시켜 예물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뜨거운 물을 붓게 하였다. 이후 확인해보니 숨었던 5명의 자객들은 다 죽었고 다시 췌가루로 상자의 구멍을 막아서 몽골군에게 되돌려 보냈다. 몽골군이 이 상자를 받고 깜짝 놀라 이용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장군이라고 생각하고는 무서워서 도망쳤다. 이 사건에 대해 「수향문기적비」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45) 『高麗史』卷24, 高宗40年 “夏四月 北界兵馬使 報狄兵三十餘人入寇 甲午 原州民 被擄入蒙古者 還言阿母侃. 洪福源詣帝所 言高麗築重城 無出陸歸款意 帝命皇弟松柱 帥兵一萬 道東眞國入東界 阿母侃洪福源 領麾下兵 趣北界 皆屯大伊州……秋七月 北界兵馬使 報蒙古兵渡鴨綠江 卽移牒諸道 督民入保山城海島……八月 習水戰 于甲串江……蒙古兵陷西海道椽山城……時也窟在土山……蒙兵陷東州山城……(九月)丙申 蒙兵屠春州城……(十月)己酉 蒙兵圍楊根城 防護別監尹椿率衆出降……甲寅 蒙兵攻天龍山城……丙寅 蒙兵陷襄州……是月 也窟等 圍攻忠州 前少卿鄭壽率二子 自京山府來降 (十一月) 也窟在忠州得病 卜者曰 久留則難返 也窟留阿母侃洪福源 守之 率精騎一千北還……(十二月) 壬戌 忠州報 蒙兵解圍.”(허인욱, 「베트남인 李龍祥의 귀화 사례를 통해 본 고려시대 多文化 수용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2014에서 발췌하였다.)

46) 박기현, 앞의 책, 2007, 39쪽.

‘高麗安孝王 癸丑 蒙古兵大來 沈犯國都 王游鋒江華 敵丈西屠甕津 勢急朝暮 公乃奮義出成 典府倅 分瑗諸軍方略 交戰五朔 敵兵大敗 宣言欲降 幣以五金函 公知其奸謀 卽穴其函灌湯 所置五刺客抱劍俱死 以金屑 塗其穴 還送蒙衆大驚 卽日乞降 收衆退走 事聞 王 大加醬嘆 命鎮山爲花山 封爵花山君 以安南有花山故也 以地方三十里 人口二十戶 爲采邑 俾奉先祀 立門曰受降 板紀蹟 以彰巍勳 卽本營館所外三門也 子孫世居 仍籍花山焉…’

고려 안효왕 계축에 몽골군이 대거 침입하여, 먼저 국도를 범하자 왕이 강화로鋒(날카로운 기세)을 피하니 적은 다시 서쪽으로 웅진을 무찌르므로, 형세가 아침저녁으로 급박하였다. 공(李龍祥)이 이에 의를 떨쳐 성에 나와 구원과 더불어 여러 군사에게 방략을 일러 주어 서로 싸운 지 5개월 만에 적병이 크게 패하자, 투항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섯 개의 금함을 예물로 보내왔다. 공이 그 간사한 꾀를 알고 그 함에 구멍을 뚫고 뜨거운 물을 부었고, 그 속에 숨어 있던 다섯 명의 자객이 칼을 안고 다 죽자 쇧가루로 다시 그 구멍을 막아서 돌려보내니, 몽골병들이 크게 놀라 그날로 항복을 빌면서 무리를 거두어 달아나 버렸다.

이 일이 알려지자 왕이 크게 찬탄하여 진산을 화산이라 하고, 화산군으로 봉작하였으니 이는 안남에 화산이 있었던 까닭이다. 지방 30리와 인구 20호로 식읍을 삼아 그것으로 선조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게 하고 문을 세워 수항이라 하였다. 紀蹟을 새겨 위대한 공헌을 표창하니, 즉 본영 관소 밖 삼문이다. 자손이 대대로 살아, 이에 화산으로 본관을 삼았다.’⁴⁷⁾

47) 이용상의 화산군을 책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화산이씨세보」와 『웅진부읍지』에 의하면 이용상이 웅진군에 도착한 후에 고종(40년) 왕이 화산군을 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수항문기적비」에서는 이용상이 1253년에 몽골군을 물리친 공으로 고종 왕이 화산군을 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면 화산군을 봉하는 기간에 대한 차이를 보이니 앞으로 이용상이 화산군을 봉하는 것에 대한 더 정확하게 언급할 수 있도록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1>: 수항문 - 몽골군이 투항하는 장소.

(출처: K B S/ 화산 이씨 종친회)

이곳 옹진 사람들에게 이용상은 ‘화산군 이용상’ 또는 ‘백마 장군’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용상은 베트남에 다시 돌아갈 수 없었기에 노력을 통해 후손들이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학교와 독서당을 만들어서 글자, 문학, 농업 등을 가르쳤다. 최상수에 따르면 ‘이에 鄉校를 고을 北쪽 受降城(수항성) 아래에 세워, 먼저의 聖人 스승을 높여 祭祀하고, 또 文雅臺(문아대)와 讀書堂(독서당)을 그 左右에 두고, 그 고을 원과 같이 博士(선비)의 禮를 익혀, 봄, 가을에는 詩書(시서)로써 가르치고, 겨울, 여름에는 禮(예)와 樂(악)으로써 익히며, 또 고을 南쪽 九眞縣(구진현) 아래에 한 작은 庵子(암자)를 지어, 花山君이 讀書堂(독서당) 세 글자로써 懸板(현판)을 걸고, 돈과 쌀을 두어서 子弟(자제)와 學徒들에게 공부하는 곳을 만드니, 弟子(제자)가 기록에 나타난 者가 천여 명에 이르러, 海西(해서)에 文學(문학)하는 선비가 많이 일어났더니, 高麗末(고려말)에 이르러 여러 번 도적과 蒙寇(몽골)과 紅巾賊(홍건적)의 화를 치러, 백성이 零落(영락)하고 鄉校가 묵어 나물 밭이 되고, 그 遺風(유풍)과 운치가 점점 變(변)하였다 하더라.’⁴⁸⁾라고 기록하였다.

48) 최상수,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서울: 韓越協會, 1966, 58쪽에서 내용을 발췌하였다.

이용상에게는 뛰어난 장군뿐만 아니라 학문을 중시하는 학자로서의 일면이 있었다. 학당을 만들고, 독서당까지 세워서 지식 확산의 통로로 삼았던 것이다. 이용상은 제2의 고향 화산에서 베트남에서처럼 생활하며 고려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이어나갔다. 이용상의 후손들도 이용상의 뜻을 존중하면서 베트남에 뿌리를 둔 화산 이씨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나갔다.

한편, 이용상은 忠孝當(충효당)이라는 절을 세우기도 하였다. 리 왕조 시대에 불교로 중심으로 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상도 시조처럼 어디에 사든지 뿌리를 지키고 싶어 해서 충효당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충효당은 절의 건축양식이 베트남의 전통 절 모습으로 되어있어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리 왕조의 후손들이 절에 모여서 베트남에 대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반생을 베트남에 살다가 국난을 피해 어쩔 수 없이 타국에 망명해야 했으니 이용상은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며 북면 봉소리 동쪽 원추형 산위에 쌓은 화산성에 아침저녁으로 올라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울었다고 한다. 나중에 이곳에 명국단을 세우고 이곳을 통해 후손들이 리 왕조에 대해 잊지 않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이용상의 고국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돌아가고 싶은 소원을 「화산이씨세보」의 「화산군본전」 끝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安南 風俗詩 花山君
 國異中原國 人同太古人
 衣冠唐制度 禮樂漢君臣
 銀瓮荔新酒 金刀膾細鱗
 年年二三月 桃李一般春

안남 풍속시 화산군

나라는 중원과 다르지마는
 사람은 태고적 사람과 같소
 의관은 당나라 제도요

예락은 한나라 군신이라
은독엔 새술 거르고
금칼론 세린을 회친다
해마다 이삼월이며
복숭아 오얏도 일반으로 봄이로다.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는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800년이 넘도록 한국에 거주하며 혈통을 지키고 계통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이용상이 정착한 화산은 현재 북한 황해도 옹진군 북면 화산 동리이며 그 후손들이 북한에도 많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조사할 방법이 없어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경제기획원)의 2000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230여 가구에 1775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표1>과 같이 2015년의 성씨별 인구통계에서는 화산 이씨는 538명이 줄어든 1,237명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화산 이씨는 대부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하고 각 시·도에 분산되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화산 이씨 전국 인구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성씨	시·도	계	남	여
화산 이씨	전국	1,237	616	621
	서울특별시	304	167	137
	부산광역시	32	12	20
	대구광역시	43	22	21
	인천광역시	209	106	103
	광주광역시	13	6	7
	대전광역시	30	17	13
	울산광역시	18	10	8
	세종특별자치시	7	6	-
	경기도	338	166	172
	강원도	26	14	12
	충청북도	45	19	26
	충청남도	33	16	17
	전라북도	26	6	20
	전라남도	7	1	6
	경상북도	58	27	31
	경상남도	44	19	25

(출처: 통계청 '2015년 성씨별 인구 순위')

이용상의 화산 이씨는 족보의 계보를 토대로 보면 현재 32세손까지 가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베트남 리 왕조부터 이용상 황자까지 6대까지 계통을 유지하며 혈통을 이어왔고 한국에서는 이용상 이후 26대까지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화산 이씨들이 혈통을 유지하여 면면히 계통을 이어 내려 올 수 있었던 것은 “망국의 황족으로써 근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망국단을 세운 중시조 이용상의 유지를 들어 언젠가는 혈통의 뿌리를 찾아 돌아가야 한다는 후손들이 강한 의지가 살아 숨 쉬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갈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베트남을 찾겠다는 화산 이씨 후손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800년 만에 숙명적으로 베트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먼 나라에서 베트남 출신 귀화인 가문이라는 흔적을 지워도 충분했던 시간 동안 조상의 뿌리를 잊지 않고 이어져 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800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베트남을 찾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용상의 후손들이 리 왕조의 후손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은 기적적인 하나의 사건인 것이다.

Ⅲ. 화산 이씨의 활동과 그 영향

1. 화산 이씨의 베트남 귀환 노력

베트남 전쟁이 한참인 1967년에, 화산 이씨의 25대 후손인 이훈이 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하여 자신이 베트남 황자 이용상의 후손임을 밝혔다. 그 뒤 이훈은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자신의 뿌리 찾기 활동을 하였고, 1226년 리 왕조가 멸망한 뒤 741년 만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언론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당시 베트남의 국가주석까지도 관심을 보였지만 1975년, 베트남이 패망하고 이훈이 1976년에 사망하면서 화산 이씨의 뿌리 찾기는 중단되었다. 그 후 화산 이씨 후손인 이창근은 이용상의 25대손이고 리 왕조의 31대 후손으로 화산 이씨의 시조인 화산군 이용상의 한을 풀고 리 왕조의 후손임을 밝히기 위해 베트남을 제일 먼저 찾았고 최초의 리 왕조의 후손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가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베트남을 찾은 동기는 그의 작은아버지인 이훈 때문이라고 한다. 이훈은 평생을 화산 이씨의 뿌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썼는데, 당시 베트남은 항미전쟁(Kháng chiến chống Mỹ)으로 북쪽에 있는 리 왕조를 방문할 수가 없어 이용상 시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이창근은 작은아버지인 이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고 800년이나 이어져 온 중시조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1992년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자 베트남의 리 왕조를 찾은 것이다.

베트남 리 왕조의 고향은 하노이에서 서북 방향으로 20km 거리에 있는 박닝성

(Bắc Ninh), 뜨선시(Từ Sơn), 딘방동(Đình Bảng)이며 이곳에는 11세기에 세워진 리 왕조 사당인 도 사당(Đền Đô)⁴⁹⁾이 있다. 도 사당은 李八帝(Lý Bát Đế) 사당이라고도 부르는데, 리 왕조의 여덟 왕의 위패와 상을 봉안한 곳으로 리 왕조의 2대 왕 李太宗(Lý Thái Tông; 1000~1054)이 1030년에 박녕성(Bắc Ninh), 뜨선시(Từ Sơn), 딘방동(Đình Bảng)에 건립했으나 1952년 프랑스와의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으로 파괴되어 1989년부터 다시 복원 작업을 통해 옛 모습을 되찾았다. 여기서 리 태조가 제의에 오른 1010년 음력 3월 15일을 기념하여 매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축제가 열린다.

이창근이 도 사당에 찾아서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다. 이후에 도 사당 관리인에게 본인이 리 왕조 후손이라고 소개했고 「화산이씨세보」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날 도 사당 관리인인 응웬득틴(Nguyễn Đức Thìn)은 “그날에 나는 리 대조 묘당 앞에 한 외국 사람이 제사를 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다. 그 후에 베트남 외무부의 직원이 한국의 이창근이라며 그는 리 왕조의 31대손이며 이용상 황자의 26대손이라고 소개해 주었고 조상의 고향에 찾아왔다고 설명해주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제를 지내는 광경에 너무 감동이 받았고 이창근이 조상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한다.”⁵⁰⁾라고 말하였다.

49) 도 사당이 있는 딘방마을의 원래 이름은 古法(Cổ Pháp)이다. 도 사당의 현판에는 ‘古法肇基(고법조기)’라고 새겨져 있다. 리 왕조의 뿌리가 이곳 古法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1225년 왕위를 찬탈한 쩐 왕조에서는 꼬팝이라는 지명이 리 왕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마을 이름을 딘방으로 바꾸어 버렸다. 停榜(Đình Bảng)이란 마을 이름은 더 이상 과거합격자가 배출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사당에서 1994년 5월 13일에 이창근은 「화산이씨세보」을 갖고와 리 왕조를 위해 제사를 올렸다.

50) 팔자가 2020년 8월 23일에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림 2>: 리 왕조의 제사하는 도 사당.

(출처: 필자 촬영)

이창근이 화산 이씨 후손으로서 베트남에 다시 찾은 이야기는 단방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대중매체로 소식이 넓게 전해졌다. 특히 1995년 3월 27일 중앙일보에는 이창근의 작은 인터뷰 기사 하나가 있었다. 제목은 ‘13세기 고려 귀화 베트남 왕자 31대손 이창근 씨’이다. 기사 내용에는 “13세기 초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의 ‘리(LY) 왕조’의 7대 왕자였던 리롱명”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리 왕조는 1009~1225년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오랫동안 번성했던 왕조였는데, 리롱명이 13세기 초 외적들이 날뛰면서 왕위세습이 좌절되자 정치적 박해를 피해 배를 탔다가 표류한 끝에 고려 옹진현에 정착하게 됐다고 설명돼 있었다. 한편, 이창근도 인터뷰에서 “韓-베트남 친선과 우호증진을 위해 현지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장학사업도 벌일 계획.”⁵¹⁾이라고 거듭 다짐하였다.

51) 중앙일보, “13세기 高麗귀화 베트남왕자 31대孫 李昌根씨”, 1995년 03월 27일.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3037439>)



<그림 3>: 화산 이씨 이창근의 인터뷰 기사.

(출처: 중앙일보, 1995년 3월 27일)

1994년에는 이창근이 도 사당에 처음 찾아왔을 때 리 태조 왕 1020년 탄신 일을 맞아 직접 리 태조에게 절을 하고 이용상의 리 왕조 고향에 방문하는 소원도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 도 사당에 첫 방문을 할 때 이창근은 너무 감동하여 본인 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오늘은 리 왕조의 후손이며 이용상 황숙의 26대손인 이창근이 대왕의 공덕을 참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대를 이는 뿌리 찾기의 집념이 이것으로 증명되며 앞으로 상신의 후손들이 이곳을 다시 찾아와서 상신들의 원혼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집념의 결심이 적게는 선소에 대한 상연한 도리이며 더 나아가서는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는 살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 선왕께 기원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억제하기 힘들며 오늘의 이러한 영광과 보람이 그 동안 삶의 외로운 행오에 대한 희석제가 되며 앞으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상신들의 고귀함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1994년 5월 18일 (11시 45분)

이 대조의 31대손 이창근⁵²⁾

이창근이 1994년 11월 25일에 두 번째로 도 사당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도 사당에서 공사하던 인부들이 땅을 파던 중 땅속에 오래 묻혀 있던 우물을 발견한 것이다. 그 우물을 깊게 파 들어가 보니 한 쌍의 향로, 한 쌍의 학, 한 쌍의 거북이가 포함된 청동으로 만든 리 왕조의 제사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 나온 것이다. 이 제기들은 1952년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때 프랑스군의 포격으로부터 사당의 제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밭에 매장하고 피난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매장한 정확한 위치를 몰라 찾지 못하고 있던 제기들로 화산 이씨 후손들이 도 사당을 찾아온 후에 발견된 것이다.



<그림 4>: 리 왕조의 제사한 물건들을 발견.

(출처: 필자 촬영)

그리고 1998년 8월 26일에 도 사당에서 李英宗 왕의 제사를 하고 있을 때 사당 바로 위 하늘에 용 모양의 여덟 줄기 조각구름이 나타난 장면을 한 사진사가 놓치지 않고 촬영하였다. 사람들은 현재에도 8조각의 구름들이 리 왕조의 역대 왕

52) Nguyễn Đức Thìn, “Di tích lịch sử văn hóa Đền Đô (도 사당의 사적)”, NXB Văn Hóa Dân Tộc, 2010년에 참고.

인 여덟 명의 왕이 형상화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두고 베트남 사람들은 심령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조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고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림 5>: 응웬득틴이 찍은 “8帝 현몽”.

(출처: giadinh.net.vn)

이처럼 딘방마을 사람들은 리 왕조의 혈통을 간직한 후예가 도 사당을 방문했을 때 제기가 발견된 것, 도 사당 바로 위 하늘에 나타난 여덟 줄기, 용 모양의 구름 등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리 왕조 조상들의 신령이 현신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거의 800년 만에 리 왕조의 후손이 고향마을을 찾아옴으로써 딘방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실현되었으며 더욱이 유물을 발견한 사건을 통해 화산 이씨 후손들이 선조들로부터 정신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한 것이다.

「화산이씨세보」를 갖고 선조의 뿌리가 있는 베트남 딘방을 찾아 왔지만 리 왕

조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보를 본 베트남의 지인들과 학자들, 도 사당을 관리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도움으로 리 왕조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길이 점차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베트남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후손들도 베트남의 리 왕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화산 이씨 후손들과 베트남 리 왕조와의 연결고리를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창근이 혼자 많은 비용을 내고 후손으로 인정받기 위해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으로 한때는 크게 실망한 느낌을 들어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죽어도 베트남에서 죽겠다”란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화산 이씨 후손들과 베트남의 리 왕조의 연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 결과 1995년 4월 13일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화산 이씨 후손들이 조상의 땅인 디방을 방문할 목적으로 이창근과 화산 이씨 후손 18명이 베트남을 다시 찾게 되는데 당시 직항이 없어 하노이로 바로 가지 못하고 호치민 도시를 경유해서 가게 되었는데,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에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베트남 정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가서 반갑게 환영하고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이상협(화산 이씨 종친회 2대 회장)에 따르면 “그 쪽의 환영이 말도 못 했고 호치민부터 공항에 나와 환영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오니까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⁵³⁾라고 말하였다.

이런 노력과 그 결심으로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 이용상 황자의 일대기가 2002년 12월 베트남 하노이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특히 이창근이 외무부를 통해 베트남의 보응우옌잡(Võ Nguyên Giáp) 대장군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보응우옌잡에게서 많은 충고와 격려를 받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용상 황자를 추념하기 위해 2015년에 ‘800년의 약속’이란 무용극이 공연되었다. 이 무용극은 베트남 리 왕조의 마지막 황자 이용상의 삶에 대한 창작극으로 한국 무용가, 베트남 연극배우, 독일의 음악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를 무용극은 통해 화산 이씨 후손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이용상 황자를 보다 자세하

53) 베트남 V T V 방송국에 만든 “한국에 화산 이씨 후손들이 뿌리를 찾는 영정” 다큐멘터리, 2017년 12월 17일에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였다.

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교류 관계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13세기에 고려에 귀화한 이용상과 그 후손들이 양국의 우호 관계에 큰 토대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이용상의 후손들이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접해주는 것이 리 대조의 후손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상 황자가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 했던 소망에 대해 심중하게 기억하고 베트남이 조상의 고향이라는 생각으로 화산 이씨 후손들이 1992년 후 베트남에 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문화,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베트남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리 왕조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화산 이씨 후손들은 국적 취득을 원하였다. 베트남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상주하고, 생활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과 법률준수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는 부모나 배우자가 베트남 사람이거나 베트남을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화산 이씨 후손들의 경우는 국적을 취득을 위해서는 선조들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화산 이씨 후손들은 「화산이씨세보」와 이용상에 대한 관련 역사 자료나 연구를 통해 이용상의 국적과 리 왕조와 관계를 밝혀냈다. 그러나 『대월사기전서』 등 현존하는 역사 기록에는 명확히 기록된 것이 없고 빈약했기 때문에 800년이란 꽤 오랜 기간 지나서 베트남 리 왕조의 후손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결국 화산 이씨 후손들과 베트남의 리 왕조 후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여 혈통확인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썬 시대에 리 왕조의 후손들을 제거하고 리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모두 ‘응웬’ 성으로 갈아버렸기 때문에 ‘응웬’ 성을 갖은 사람 중 리 왕조의 후손이라는 사람의 피를 통해 DNA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검사는 충남대학교 생물학과의 김연진 교수의 팀이 진행했으며 리 왕조의 후손 계열의 혈통에 대한 DNA검사 결과 한국의 화산 이씨가 리 왕조의 혈통을 보존해 온 것으로 밝혀냈다.⁵⁴⁾ 이처럼 화산 이씨 후

54) 박기현, 앞의 책, 2007, 42쪽.

손들은 리 왕조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DNA검사를 통해서 같은 혈통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으므로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리 왕조의 후손임을 인정하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었다.

화산 이씨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1237명이 살고 있다. 이들 화산 이씨 후손들 중에 제일 먼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창근이다. 당시는 한국-베트남 민족문화교류협회를 창설해 양국 간 교류 협력 사업을 펼치다가 시조가 베트남 사람으로 베트남 국적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2000년 8월 13일 가족과 함께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이주기로 결심했고 베트남에 왔다. 2007년 6월 18일에 리 왕조의 31대 후손이며 이용상 황자의 26대손의 자격으로 베트남 해외교포위원회에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베트남과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취득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 베트남 해외교포위원회는 이창근과 가족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2009년 10월 16일에 베트남 국가주석이 ‘1532/QD-CTN’의 결정을 통해 이창근과 가족들 모두 6명이 베트남인으로 귀화하게 되었다. 현재 화산 이씨 후손들 중에는 이창근 가족만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이중국적으로 한-베 교류 협력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그림 6>: 이창근의 가족이 베트남 귀화 결정을 받음.

(출처: Tung Duong/ tienphong.vn)

2010년 6월 28일에 강무학의 『황숙 이용상』 소설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출판 기념회를 여는 자리에서 베트남 해외교포위원회와 베트남 주재한국대사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국인 지위를 부여와 함께 각종 세금과 공과금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베트남 정부는 화산 이씨를 “가장 오래된 해외동포”로 칭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창근은 800년 후에 선조의 국가를 찾고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어 행복하며 자랑스럽고 이용상 황자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후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감사드렸다고 한다. 어쩌면 이 국적을 취득은 작은 의미로는 한 개인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역사와 역사를 연결하고 나라와 나라를 긴 시간 동안의 교류라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가교역할을 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화산 이씨 노력의 결실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⁵⁵⁾에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였으며, 무엇이었는지, 지금의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이 800년이란 온갖 장애를 이겨내고 조상의 근원을 찾은 불굴의 의지에 대해 경의(敬意)롭다 할 수 있다.

2. 베트남에서 화산 이씨의 활동

1) 경제적 활동

베트남은 경제 우선 개방·개혁 정책인 ‘도이머이(Doi Moi: 새로운 것으로 바꾸다)’⁵⁶⁾정책으로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

55) 알렉스 헤일리(1921~1992)가 1976년에 쓴 <뿌리: 미국가족의 대하소설>(Roots: The Saga of an American Family)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듬어 올라가서 조상들을 추적한 끝에 7대조가 1767년 아프리카의 감비아에서 백인들에게 납치당해 노예로 팔려온 쿤타 킨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머나먼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에서 혈육을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뿌리를 찾은 기쁨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알렉스 헤일리는 쿤타 킨테의 7대손으로 소설 뿌리는 그의 조상 쿤타 킨테의 삶에 살을 붙여 재구성하였다.

56) ‘도이머이’는 베트남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머이’가 합쳐진 용어로 쇄신이라는 뜻이며,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슬로건으로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달성하자’는 구호 아래 진행된 혁신과 개혁을 일컫는 말이다. 1986년 12월

본주의를 접목을 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그 범위와 내용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베트남의 사회·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리 왕조 이용상 황자의 후손들은 제2 고향인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는 화산 이씨들의 다방면에서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하여 2010년에 베트남 국적을 갖게 된 이창근을 임기 3년(2017년 10월~2020년 10월)의 관광대사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베트남 관광총국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한 베트남관광청 대표부 설립 승인 협약식을 갖고 한국 관광객은 물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베트남 관광자원 홍보를 주관하도록 주한 베트남관광청 대표부 대표로도 임명하였다.

2004년부터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나라로 선정하여 한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을 많이 오고 있다. 베트남을 찾은 해외 관광객 중 최다 방문 국가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다. 한국관광공사와 베트남관광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만 베트남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207만 8,000여 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1.3%나 급증하였다. 베트남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2015년 115만 2,000여 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한 뒤 지난해까지 매년 30~40%씩 증가하며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8년에는 343만 5,000여 명이 베트남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고 2019년에는 400만 명이다.⁵⁷⁾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폐쇄되기 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들이 줄었지만 2018년 같은 기간보다 46만 8천 명 10%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베트남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곳이다. 이전부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이 정책은 1975년 끝난 베트남전에 이어 1979년 발발한 중국과의 국경전쟁 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로 돌파구를 찾아 나섰고 쇄신 정책을 추진하였다. 도이머이의 기본 토대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으며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 경제를 도입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57) 서울경제, “리쓰영간 대사 “한국인으로, 베트남 왕조 후손으로...700년 인연 잇는 가교 역할 해야죠”, 2019년 9월 20일에 기사 내용을 참고.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BK18X5U>)

케팝과 드라마,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다. 게다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베트남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맞물려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사람들이 지난 2019년 1월까지 52만 명으로 2018년 보다 21.9%에 상승하였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의 관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비자 발급 등 양국의 관광정책이 뒷받침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관광업을 하고 있던 이창근의 노하우와 관광대사 위치에서 베트남에 대한 홍보와 양국 관광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도 있다고 본다.

이를 입증하듯 이창근은 관광대사의 책임과 주한베트남관광청 대표부의 대표로써 “나는 베트남 하노이를 수도로 지정한 리 왕조의 후손이다. 리 왕조 말미에 왕위 찬탈이 발생하면서 그 후손이 1220년대 한국으로 넘어와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냉전 시대는 끝나고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재 수교하게 되었으며 리 왕조 후손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양국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양국의 교류를 위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한-베 민족문화교류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했고, 2000년도에는 우리 가족이 베트남으로 넘어가 새롭게 삶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은 하노이 정도(수도를 정함) 1,000년을 맞아 베트남 국적을 받게 됐다. 2017년 11월에는 베트남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관광대사로 임명을 받았고,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자 주한 베트남관광청 대표부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⁵⁸⁾ 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 성동구 화양동에 자리를 잡은 ‘주한베트남관광청’은 베트남만의 아기자기한 색채를 담아내고 있다. 관광청 개청식에는 응웬 응옥 티엔(Nguyen Ngoc Thien)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반시에우(Ha Van Sieu) 관광청 부청장, 응웬 부 뚜(Nguyen Vu Tu) 주한베트남대사와 이창근(베트남명 Ly Xuong Can) 주한베트남 관광대사, 그리고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 감독 등이 참석하였다. 티엔 장관은 개청식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 협력은 크게 확대돼 왔다”며 “베트남 문체부가 한국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한국에서 베트남축제를

58) 여행신문, 주한 베트남관광청 대표부 리쓰영간 Ly Xuong Can, 이창근 대표(관광대사) “업계의 베트남 투자 적극 협력…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019년 8월 19일에서 내용을 발췌하였다.

개최함으로써 양국 국민들 간 우정과 상호이해를 확대하고, 한국민들이 베트남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기여했다.”⁵⁹⁾라고 밝혔다.

관광청 개청을 기반으로 베트남 문체부는 2020년까지 한국인 방문객수를 5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 코로나 19로 양국 간의 입국이 제한적이지만 입국 제한이 해제되면 국제 정세나, 양국 간 정서적 거리 등으로 보아 생각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여행업계의 많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리 왕조 후손이 다시 베트남을 찾은 것처럼 두 국가가 필연적인 관계성을 설정해 나간다면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개청식.

(출처: 인사이드비나; <http://www.insidevina.com>)

주한베트남관광청 대표부는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관광 교류와 확대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관광청 대표부는 한국인들에게 베트남 관광을 소개하고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웹사이트를 개설·관리하고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베트남 및 여행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여행객들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59) 베트남 전문 뉴스 (www.insidevina.com), “주한 베트남 관광청대표부 개청…양국 관광산업 확대 기대”, 2019년 6월 28일에 참고.

및 관광산업 지원과 양국의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업 지원 등 준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관광청 대표부 역할을 단순히 관광 교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유치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기업 진출이나 투자에 따른 위험성 등 여러 변수들을 방지하여 실패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올바른 길로 안내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한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선불카드나 투어카드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급증하는 젊은 층의 여행 패턴이 자유여행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주한베트남관광청 대표부는 한국 관광객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베트남 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특히 카드 사용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편리하기도 하고 투어 안내와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수입 상승에 획기적이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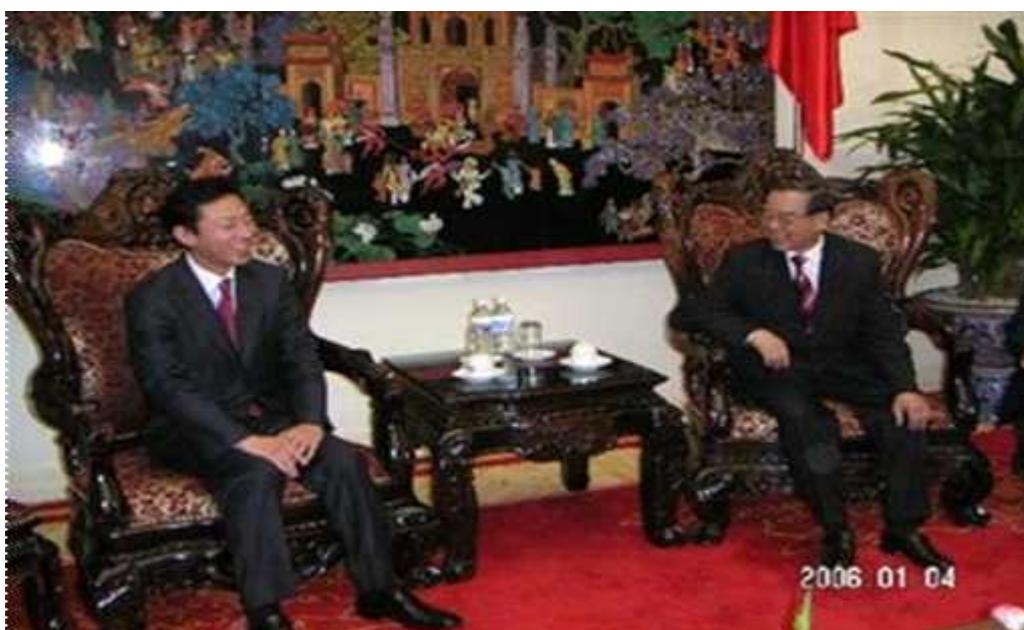
이창근은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문화와 관광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 이창근이 베이엠티(Công Ty TNHH Việt Lý Miền Trung)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2004년 1월 1일에 문을 열었다. 이 회사는 베트남의 중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재활용 물품 생산과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재충전한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다낭(Đà Nẵng)에서 관광, 서비스와 무역 등으로 범위가 넓혀 활동하고 있다.

이용상 황자의 36대손인 이상준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회장으로 2005년에 베트남 해외교포위원회에 공식으로 등록하고 2006년에는 당시 베트남 총리였던 팜 반 카이와 공식면담과 리 왕조의 후손임을 확인이 받았다. 이상준은 제2 고향인 베트남의 발전을 위해 2006년에 ‘골든브릿지’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지원 등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의 80%를 현지인으로 채용하여 한국의 선진 금융기법과 제도를 전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해외교포위원회에 따르면 이상준이 2007년에 ‘한-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260만 달러를 출자하여 베트남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생

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과 한국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공로로 2008년에는 미국의 포브스(Forber)가 선정한 아시아의 48명 후원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이창근을 비롯한 화산 이씨 후손들이 크고 작은 경제활동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투자를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이 되고 있으며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 베트남 경제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림 8>: 왼쪽 이상준과 오른쪽에 베트남 총리였던 팜 반 카이.

(출처: 베트남 젊은이 신문 tuoitre.vn)

2) 문화적 활동

화산 이씨 후손들은 베트남에서 리 왕조의 후손임을 인정을 받은 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교류 확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1995년 후에 베트남에 다시 찾아온 후에 화산 이씨 후손들이 매년 음력 3월 15일에 도 사당에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도 사당(Đền Đò)

은 원래 “리 왕조의 사당”이라고 불렸고 리 태조가 설립하였다. 『大越史記全書』에 의하면 “11번 순천(順天) 1019년에는 티엔득 산능(山陵)에서 사당을 건설한다.”라고 기록하였다. 나중에 리 태조가 돌아가신 후에 리 왕조 2대 왕인 李太宗(Lý Thái Tông; 1000~1054)과 신하들이 매년 리 왕조의 사당에 가서 제사하였다. 1030년 3월 3일에 李太宗과 백성들이 리 왕조의 사당을 고치기 시작했고 사당 안에서 古法(Cổ Pháp) 전을 넓게 지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리 왕조의 사당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도 사당이라고 부른다. 도 사당 이름은 리 태조의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한 공덕을 기억함을 의미한다.

도 사당은 전쟁으로 여러 번 파괴되었는데, 1952년에 프랑스 군인들이 도 사당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베트남의 국부로 죽어서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胡志明(Hồ Chí Minh) 전 주석이 1945년 9월 13일 도 사당을 방문하여 리 왕조의 위업을 배울 것을 역설하였다. 胡志明 주석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1955년 도 사당을 방문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당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1989년에 도 사당의 원래 모습을 되찾았으며 매년 음력 3월 15일에 리 태조의 즉위기념식을 하며 리 왕조의 공덕을 추념하기 위해 축제를 열고 있다. 그리고 이용상 황자의 후손들은 매년 시조에게 혈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준 은공을 마음에 담아 축제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국부였던 胡志明 전 주석 외에도 당서기장, 주석, 국회의장 등 주요 국가지도자들은 매년 도 사당을 참배하고 있는데, 이곳은 베트남 사람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간직한 사적이기 때문이다.

도 사당 축제는 3일 동안 열리는데 음력 5월 13일에 리 태조가 왕위에 오른 날 이라서 15일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도 사당을 찾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왕 행렬의례를 참관한다. 이 의례는 14일 오후부터 시작하고 15일에 아침 7시 고팝전에서 리 왕조의 위패를 도 사당으로 모시는 행진을 한다. 도 사당 축제는 베트남의 전통을 지키고 최초의 독립국이란 자부심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에게 나라의 근원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축제이다. 화산 이씨 부회장인 이희연에 따르면 “한국에 태어났지만 자기의 원래 뿌리가 베트남 박닝성이다.”⁶⁰⁾라고 할 정

60) 베트남 VTV 방송국에 만든 “한국에 화산 이씨 후손들이 뿌리를 찾는 영정” 다큐멘터리, 2017년

도로 항상 마음속에는 베트남이 훌륭하고 발전된 나라가 되기 위해 기원하는 마음을 갖고 화산 이씨 후손들이 매년 도 사당을 찾고 축제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축제를 통해 이용상 황자의 염원이었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고 박닝성 사람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있어 매년 도 사당의 보수비용을 출현하는 것은 후손들의 작은 보답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화산 이씨 후손들은 도 사당 축제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의 한 축을 형성하여 양국 관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도 사당에 전시된 화산 이씨 후손들의 축제 참석 사진.

(출처: 필자 촬영)

화산 이씨 후손들은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도 사당에 「화산이씨세보」를 기증하였다. 「화산이씨세보」는 리 태조부터 화산 이씨의 시조인 이용상 황자와 현재까지 후손들에 대한 혈통과 계보를 기록한 세보이다. 그뿐만 아니라 「화산이씨세보」 내용 안에 이용상 황자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항문기적비」, 『웅진부읍지』, 「화산군본전」 등이다. 「화산이씨세보」를 기증에 대해 도 사당을 관

12월 17년에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였다.

리하는 당홍디엵(Đặng Hồng Điệp)은 “화산 이씨 후손들이 「화산이씨세보」를 기증으로 도 사당과 리 왕조의 후손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 세보를 통해 리 왕조의 후손인 이용상 황자에 대해 잘 알 수 있고 도 사당을 찾는 참배객이나 관람객들도 리 왕조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⁶¹⁾라고 말하였다. 현재 「화산이씨세보」는 한자와 한국어로 쓰여 있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베트남어로 번역할 예정이다.



<그림 10>: 화산 이씨 후손들이 도 사당에게 「화산이씨세보」를 기증함.

(출처: www.sugia.vn)

「화산이씨세보」를 기증한 후에 화산 이씨 후손들은 강무학의 소설 『황숙 이용상』을 베트남어로 출판하였다. 베트남에는 이용상 왕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역사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 책의 출판은 이용상 황자와 후손들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07년 7월 12일에는 화산 이씨 후손인 이상준은 한국과 베트남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교류단체인 ‘한·베 재단(HanViet Foundation)’을 설립

61) 필자가 2020년 8월 23일 인터뷰한 내용이다.

하였다. 한·베 재단은 민간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 교류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2007년 6월 1일에 외교통상부로부터 재단설립허가를 받아 만든 민간교류단체이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에 관한 교류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 화산 이씨 후손인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이 사재 25억여 원과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30억 원의 재단기금을 조성하였다. 재단 창립식에서 한·베 재단에 출연한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운명’이라며, 780년 전 이용상 황자가 보여 주었던 것처럼, 운명과 혈연까지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베 재단을 통해서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⁶²⁾라고 밝혔다.

한·베 재단은 2007년 5월에는 ‘한·베 수교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주관한 ‘베트남의 날’ 행사 후원을 시작으로 2010년 리 왕조의 건국 1000년 기념행사 때 화산 이씨 후손들도 베트남 문화부의 초대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2016년은 이용상 황자가 베트남을 떠난 지 790년이 되는 해로 도 사당 축제 날에 이용상 황자의 망명 790주년 행사도 같이 진행할 의사를 표한 바가 있으며, 2017년 3월 31일에는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 올린 무용극 ‘800년의 약속’이 상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을 통해 문화적인 가치를 재정립하고 국가브랜드로써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이용상 왕자에 대한 국제학술 심포지엄도 진행되었다.

이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화산 이씨 후손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문화를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2) 대한뉴스, “한-베트남 가교역할, ‘한-베 재단 출범식’ 열려”, 2007년 7월 12일.

3. 화산 이씨의 활동이 한국-베트남 관계에 끼친 영향

1) 한국 언론의 화산 이씨 관련 보도와 한국-베트남 관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시기를 제외하면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이전까지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유지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비공식적이지만 중국의 송나라 시기부터 청나라 때까지 중국에 파견됐던 사신들 간에 서로 교류한 기록은 남아 있다. 특히 1009년부터 1225까지 유지된 베트남 리 왕조 때 李英宗은 번돈 항구를 중심으로 5군데에 국제무역항을 개발하였으며 고려, 멘, 씨엠, 중국, 인도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무역은 하지 않게 되었고 조공과 책봉 등 외교관계를 위해 중국으로 간 양국 사신들에 의해 단편적이거나 교류의 기록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양국은 ‘쯔놈’(杼喃)과 ‘한글’이라는 각자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중국문화권의 영향으로 한자를 도입하여 공동의 문자로 사용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에서 만난 양국의 사신들은 필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며 중국에서 구입한 도서를 통해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교류는 이수광과 後黎朝(Hậu Lê triều; 1428~1789) 사신인 馮克寬(Phùng Khắc Khoan; 1528~1613)의 사례이다. 두 사람은 서로 시를 나누고 필담을 주고받으며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과 서로의 역사와 풍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馮克寬은 베트남으로 돌아가 이수광의 한시를 베트남에 소개했으며, 이수광 역시 베트남 사신들과 나눈 필담을 책으로 엮어냈다. 이를 통해 조선과 베트남 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아시아대륙 한쪽에 성리학이 그에 따른 의례들을 공유하는 또 다른 문명국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에 따라 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상대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국민들은 민족에 또한 남다르다. 두 나라 모두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픔과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저항운동의 경험이 있다. 냉전 시대를 지나며 분단과 전쟁의 쓰라린 경험도 똑같이 지니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이토

록 비슷한 문화와 정서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 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던 시기에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당연히 외교권이 박탈당한 식민지의 상황에서 두 나라의 교류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에 양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식민지 해방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지난 2018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프랑스 정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임시정부 요인들과 베트남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호치민(Hồ Chí Minh) 전 주석이 독립에 대한 교감을 나눈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불 한국사 연구자 이장규가 프랑스국립해외영토자료관(ANOM)에서 찾아낸 프랑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19년부터 1920년까지 파리에서 호치민의 행적을 밀착 감시하던 프랑스 파리의 정보경찰관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에 그러한 교류의 단면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⁶³⁾ 이는 베트남과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연대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호치민은 한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소속의 김규식을 비롯해 황기환, 조소앙, 윤해 등과 교류를 하면서, 한국 독립운동가와 더불어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과의 연대는 식민지 약소민족활동가들과의 상호협력과 교류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식민지 시절에 가진 교류와 교감이 현재 볼 수 있는 우호적인 상호 교류와 긴밀한 외교 관계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직·간접적인 교류의 흐름 속에서 800년을 뛰어넘은 화산 이씨의 등장은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간에 더욱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새로운 가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화산 이씨 후손들의 활동이 양국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한국과 베트남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언론 보도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화산 이씨 후손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이면서 양국관계에 미친 영향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에 나타난 화산 이씨 기사들을 보면 화산 이씨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 즉,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생각도 점차 우호적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63) 연합뉴스, “100년 전 프랑스 경찰보고서에 기록된 일제의 야만성”, 2018년 09월 30일.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한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을 처음 방문한 1995년부터이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한국 언론의 화산 이씨에 대한 기사 (1995~2020년)

연번	년도	주요 내용	신문사	건수
1	1995	화산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에 최초로 방문	국민일보, 중앙일보, 부산일보, 한국경제	4
2	1999	이용상과 화산이씨 후손들의 한. 베 가교역할	한국경제	1
3	2000	화산이씨 후손들이 리 왕조 사당에 해마다 방문	한라일보, 매일경제	2
4	2001	화산이씨는 베트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중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4
5	2002	베트남 왕손으로 고려 귀순 이용상 일대기 오페라 공연	서울신문, 부산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4
6	2003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인 공통점	경향신문	1
7	2005	화산이씨 후손인 브릿지증권 이상준의 활동	한겨레, 서울신문, 동아일보, 내일신문, 연합뉴스	5
8	2006	베트남 기업 구조조정 브릿지증권이 맡는다	광주매일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5
9	2007	한국과 베트남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교류단체인 '한.베 재단(Han Viet Foundation)'이 12일 출범했다	부산일보사, 매일신문, 경기일보, 머니투데이, 내일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아시아경제, 한겨레, 동아일보.	11
10	2009	찌엣 주석 "李 대통령은 형, 나는 아우", 화산이씨의 가교역할 언급	중앙일보, 동아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4
11	2010	화산이씨가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가교역할 분석	강원도민일보, 내일신문, 머니투데이, 매일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7

12	2011	화산이씨에 대해 이야기	세계일보	1
13	2012	화산이씨의 유래 언급	울산매일, 광주일보, 국제신문	3
14	2013	고려에 귀화인 이용상에 대해 언급과 화산이씨의 활동	서울신문	1
15	2014	화산이씨를 통해 두 나라 간 혈연을 이어나가는 계기	헤럴드경제, 아주경제	2
16	2015	한국과 베트남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	광주매일신문, 연합뉴스, 국민일보, 인천일보	5
17	2016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제2의 한류 붐 일으키길	영남일보, 충청일보, 뉴스위치, 세계일보,	5
18	2017	호찌민-경주엑스포 2017에서 文 대통령 ‘리롱명 왕자’ 언급을 통해 한국관 베트남 우호 관계를 강조	세계일보, 대구일보, 영남일보, 내일신문, 중도일보, 중앙일보, 더스타, 서울신문,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한국경제, 경북도민일보, 충북일보, 한국일보	27
19	2018	화산이씨·리 왕조 역사 통한 국제 우호 교류 확대	매일신문, 중도일보, 대구일보, 충북일보, 영남일보,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세명일보	18
20	2019	주한 베트남 관광청 대표부 개청과 양국 관광산업 확대 기대	영남일보, 매일신보, 아주경제, 서울경제, 중앙일보, 한국역사문화신문, 중도일보, 대구일보, 한국일보, 여행신문, 인사이드비나, 연합뉴스	14
21	2020	베트남서 온 화산이씨가 봉화군 소설 ‘스토리텔링’ 출간	매일신문, 중앙일보	2
총합계: 126				

초기의 언론 보도는 상당부분이 이용상의 고려로의 망명과 ‘화산 이씨’ 성립과정에 대한 소개였다면 점차적으로 ‘화산 이씨’의 베트남에서의 활동,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계 분석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보도에는 13세기 초 고려에 귀화해 정착한 베트남 리 왕조의 화산 이씨 후손들이 ‘뿌리’를 찾아 고국 베트남을 최초로 방문하였다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 한편, 2002년에는 베트남에서 이용상 일대기 오페라 공연과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서 온 왕손들에게 사실상의 내국인 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언론 보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점차적으로 베트남 정부에서 화산 이씨 후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을 다시 찾아 다음에 보여주는 베트남 정부나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언론 보도들은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 리 왕조의 후손이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의 흐름을 보면 1992년 전까지는 한국과 베트남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직접적인 인적교류의 주인공인 이용상의 존재와 그로부터 비롯된 화산 이씨 후손들의 베트남 방문이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언론들은 화산 이씨 후손들의 베트남에 첫 방문에서 더 나아가 베트남에서 활동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언론 보도에는 특히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화산 이씨인 이창근과 이상준에 대한 활동이 많았다. 이창근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다시 찾아와 한국과 베트남 역사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한 역할에 주목하였고, 이상준의 경우에는 골드브릿지 증권회장으로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경제 투자 활동이 자세하게 소개된 바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 언론 보도는 한국과 베트남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교류단체인 ‘한.베 재단(HanViet Foundation)’이 출범이다. 재단의 주요 인물들이 화산 이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 특히 기업가인 이상준이 중심이 되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해온 것을 보면 이용상의 고려 귀화라는 역사의 조각이 어떻게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을 듯하다.

이용상이라는 인물의 재발견과 그러한 조상의 ‘뿌리’ 찾기에 토대를 둔 화산 이씨 후손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이를 한국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는 정

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에도 양국 간의 친선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 베트남 주석 응원 밍 짜엣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에 등장한 언론 보도를 보면 상당수가 “짜엣 주석 ‘李 대통령은 형, 나는 아우’ 제목으로 쓰고 그 내용 안에 베트남 리 왕조의 화산 이씨 후손들에 대한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더욱 긴밀해지고 가까워진 관계를 밝힌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이어진 후속보도를 통해 한국 언론들은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해 다시 한 번 역사적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류의 정보들을 통해 한국인들이 베트남 역사에 대해 보다 더 이해를 증진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의 교류사와 공유하는 문화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혀가는 토대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가 직·간접적으로나마 양국 국민들 상호간의 정서적 친근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이다.

한국 언론에서 이용상과 그 후손들에 대해 제일 많이 언급하는 시기는 2017년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열렸을 때이다. 이 시기의 언론 보도 대부분은 행사장에 마련된 ‘유교문화교류관’에서 소개된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만남과 문화교류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있다. 아울러 화산 이씨와 같이 고려시대 한반도에 들어와 정착한 베트남인들의 이야기와 양국의 유교 전통문화의 유사성도 소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를 통해 전한 한국과 베트남 우호관계의 메시지가 많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개막식에 보낸 영상축전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은 유구한 역사 속에 함께 교류해 왔다”며 “고대부터 우리 선조들은 먼 바닷길을 오가며 교류를 시작했다. 안남국의 왕자 리룡명(李龍祥)은 고려에 귀화해 한국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호찌민 주석의 애독서가 조선시대 유학자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용상과 그 후손들의 활동을 언급하고 베트남과 한국 관계에서 가교역할을 높게 판단함으로써 이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대해 보다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이어서 한국 언론들이 베트남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베트남의 언론 보도 중에

한국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유학생 등을 고려시대의 베트남 표류민의 후예로 여기고, 베트남인도 한국인을 화산 이씨의 후손처럼 대한다면 양국의 우호가 훨씬 두터워질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용상의 존재가 지속적인 유대관계의 촉매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기간 동안 호찌민 오페라하우스에서 이용상 왕자의 이야기를 다룬 무용극 ‘800년의 약속’ 공연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2018년부터의 언론 보도에는 우옌부투(Nguyen Vu Tu) 주한 베트남 대사 일행이 한국에 자리잡은 조상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로 경상북도 봉화군의 충효당을 방문했다는 사건을 주목한 것이 눈에 띈다. 베트남 외교관의 이용상 사례에 대한 관심과 이어진 행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및 경제교류를 확대와 이를 통한 양국 간 우호증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작은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화산 이씨와 관련이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과 베트남 사이에 농산물 유통, 관광객 유치, 인력 확보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경제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는 하노이 TV 부투짱 기자(42)가 “리 왕조는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을 독립시킨 왕조로 베트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어 그 후손들인 화산 이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며 “베트남 역사를 품은 봉화군에 베트남타운이 조성돼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역사 교류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부터 2020년 사이 한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용상과 그 후손들을 활동이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교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양국 상호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양국관계는 형제 관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목받는 ‘사돈 나라’ 등으로 더 가깝고 친밀한 이미지 형성과 관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신문과 TV뿐 아니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본다면 이용상과 그 후손들의 활동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베트남 언론의 화산 이씨 관련 보도와 한국-베트남 관계

리 왕조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긴 216년 동안이나 번성을 구가했던 왕조이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첫 왕조라는 점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애정이 각별하다. 현재도 베트남 사람들은 수시로 “리 왕조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 왕조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비극적 사건에 의해 멸족된 줄만 알았던 리 왕조의 후손들이 3,600여 km나 떨어진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베트남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베트남에 늦게 알려진 이유는 한국과 베트남이 오랫동안 국교가 단절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2년부터 양국이 국교가 수립된 후에 화산 이씨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끊어졌던 베트남 역사의 고리를 연결해 준다는 의미와 함께 양국관계의 친밀감을 강하게 해주었다.

1995년 이용상의 화산 이씨 후손들이 처음 베트남을 찾았을 때는 도무오이(Đỗ Mười) 당서기장을 비롯한 베트남의 3부 요인이 모두 나와 이들을 환대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서 온 리 왕조의 후손들에게 사실상의 내국인 대우를 해주는 것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당시 베트남 언론들은 큰 관심을 갖고 ‘끊겨버린 리 왕조의 왕통이 부활했다’라고 대서특필했고, 현재도 화산 이씨와 그 후손들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국과 베트남 교류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 언론들이 화산 이씨의 활동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를 이어왔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언론은 프랑스로부터의 식민지 해방운동 시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본격적인 언론의 역사는 베트남혁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르면 1925년부터 호치민 주석이 발간한 ‘청년지’를 베트남 최초의 본격적인 언론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의 언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호치민은 “언론이 몇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당과 정부의 정책을 홍보해주는 역할이라서 베트남 언론이 균중적인 특징을 갖고 전투 성신이 있어야 한다.”⁶⁴⁾라

64) 베트남 공산당 시문, “Tư tưởng Hồ Chí Minh về báo chí cách mạng Việt Nam (베트남 언론에 대한 호치민의 사상)”, 2019년 6월 21일.

고 말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언론의 역할은 2016년 언론 법률 4호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언론은 사회생활에 중요한 대중 매체이고 공산당, 공공기관, 정치 단체, 사회단체의 언론 기관이며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언론매체들은 공산당의 영도와 국가의 관리하에 존재하며 주어진 법률의 틀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정부의 통제가 상당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모두 진실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베트남 언론을 통해 소개된 화산 이씨의 활동과 그들의 행보가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정리해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베트남 언론의 화산 이씨에 대한 기사 (1995~2020년)

연번	년도	주요 내용	신문사	건수
1	1995	고국을 방문한 화산 이씨 후손 대표단을 맞이해	년전지	3
2	2003	이용상의 사적과 화산 이씨 후손에 대해 소개	노동지	1
3	2004	화산 이씨 후손들이 부강한 베트남 고향을 건설 희망	년전지	1
4	2005	이용상에 대한 연구 소개	선봉지	2
5	2006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에 다시 찾아 온 과정	젊은이, 사이공 해방지, 노동지	7
6	2007	화산 이씨 후손들의 활공과 한·베 관계 강조	젊은이, 선봉지, 인민공안지, 사이공 해방지	7
7	2008	화산 이씨 후손들이 리 왕조 사당 축제 참석과 한·베 문화 교류	청년지, 젊은이, 선봉지	3

8	2009	화산 이씨 후손들이 한·베 관계에 가교역할을 병가	젊은이	2
9	2010	이창근과 가족이 베트남 귀화 및 “황숙 이용상” 역사소설 출간	청년지, 젊은이, 선봉지, 비엠티브러스, 노동자지, 공산당잡지, 수도 안전지, 고향지, 떠비엠티지, 불교지	16
10	2012	이씨 세미나와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관계	사이공 해방지	1
11	2013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에서 새해를 경축하기	젊은이, 전비엠티	2
12	2014	한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해 노력	선봉지, 비엠티브러스, 사이공 해방지, 미술연주지	4
13	2015	한국·베트남, 고려 귀화 베트남 왕자 이용상 일대기 영화 만들기	청년지, 전지, 비엠티브러스, 대 결집지, 사이공 해방지, 새 하노이지	9
14	2016	화산 이씨 후손이 베트남의 창사 군도에 방문	청년지, 노동지, 전지, 대 결집지, 인민공안지, 수도 안저지,	10
15	2017	호찌민-경주엑스포 활동과 文대통령 "베트남에 마음의 빛, 이제 가장 중요한 친구" 발표를 통해 한·베 우호 관계를 강조	청년지, 노동지, 젊은이, 전지, 선봉지, 빠른지, 비엠티브러스, 대 결집지, 인민공안지, 수도 안전지, 농업지, 문화체육지, 사이공 해방지, 법률 생활지, 수도 젊은이, vtv.vn, 수도 경지, 검찰지, zingnews.vn, 정부지, vovworld	32
16	2018	봉화군, 베트남 뜨선시와 화산이씨와 리 왕조 공통 역사를 통한 국제 교류 확대	젊은이, 빠른지, 비엠티브러스, 문화체육지, 베트남 통신사	7
17	2019	베트남 관광청 한국대표부 개청 및 한국과 베트남의 관광을 발전 희망	년전지, 노동자, 전지, 선봉지, 비엠티브러스, 대 결	19

			집지, 공산당잡지, 사이공 해방지, vtv.vn, 수도 경제지, zingnews.vn, 정부지, 공상지	
18	2020	한·베 관광 발전에 대해 베트남 총국장 응웬 총 칸과 리쓰영간의 논의	성봉지, 박장지, 여행지	4
				총합계: 130

해당 기간 동안 ‘이용상’, ‘화산 이씨’ 또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 용어로 검색하면 총합계에는 130개의 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한국 언론의 관련 기사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기사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 언론들이 한국보다 상당히 늦게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온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인터넷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고, 2005년을 전후해 여러 인터넷 뉴스매체들이 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비용이 상당히 드는 인터넷매체보다는 종이신문에 더 익숙한 편이다. 아쉽게도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는 ‘이용상’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해도 해당 내용이 보도된 신문 기사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색이 가능한데, 1995년에는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에 처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를 비롯해 국가의 영향이 미치는 상당수의 언론 기관들이 대거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중에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로서 국가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년전지’는 특히 관련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해당 언론 보도는 7백여 년 전에 베트남 리 왕조의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했던 사실과 더불어 그 후손들이 ‘뿌리’를 확인하여 베트남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였다.

2007년에는 화산 이씨의 대표적 사업가 이상준과 ‘한-베 재단’의 설립이 베트남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 사재 25억 원과

계열사 출연금 5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을 들여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사회 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한-베 재단’을 만든 것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베트남 당국에서 그의 베트남 혈통을 공식 인정해 내국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내국인 대우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 보도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화산 이씨 후손들을 각별히 환영한다는 점과 한.베 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베트남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에는 화산 이씨 후손 이창근과 그의 가족들이 베트남에 귀화한 사건이 베트남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 한국에서의 관련 보도에 비해 베트남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베트남에 다시 찾아오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베트남 정부의 도움을 받아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물론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1994년에 처음 베트남을 찾아 2010년까지 6년의 기간 동안 리 왕조의 후손임을 증명하려는 각별한 노력을 진행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그 자체로도 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베트남 교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국적 취득 관련 정책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상 후손들의 베트남 국적 취득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이면에는 이용상 후손들처럼 해외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과의 민족적 일체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화산 이씨 후손들의 경우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대사 박석환도 “한국도 사람의 ‘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용상 후손들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 양국의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화산 이씨 후손들이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가교역할을 잘 할 수 있기 위해 기대한다.”⁶⁵⁾라고 큰 의미를 부여한 것 역

65) 베트남 노동신문, “속마음에 고향 (Đất tổ mãi trong tim!)”, 2010년 9월 29일.

시 언론 보도를 통해 소개되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화산 이씨 후손들은 베트남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베트남 언론들은 리 왕조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도 사당에 관련하여 화산 이씨 후손들이 해마다 제사 일과 축제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과 이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사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에서 화산 이씨를 내국인으로 인정하여 내국인 증명서를 내주고 베트남 현지에서의 사업권도 승인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화산 이씨 후손들이 도 사당에서 매년 열리는 제사 및 축제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리 왕조의 업적을 기리면서 베트남의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용상 후손들이 도 사당에 화산 이씨의 족보인 「화산이씨세보」를 기증한 것은 리 왕조에 대해 끊어졌던 역사를 다시 연결해 주는 의미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도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보다 잘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현재 화산 이씨의 후손들은 베트남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영성(Lý Thừa Vinh)의 사례 역시 베트남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한국으로의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활동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12월 3일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혈연적으로 친밀감이 있는 화산 이씨 후손들의 활동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은 직, 간접적으로 한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었고 한국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언론에서 화산 이씨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면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 뚜원 안(Hoàng Tuấn Anh)에 의하면 ‘화산 이씨 후손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교류 부분에서 우호 관계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베트남 문화체

(출처: <https://nld.com.vn/thoi-su-trong-nuoc/dat-to-mai-trong-tim-20100629122620558.htm>)

육관광부도 화산 이씨 후손들에게 베트남에 문화 활동과 경제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⁶⁶⁾라고 말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한국 언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언론들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에 대해 많은 관심이 나타났다. 베트남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천명한 신남방정책의 핵심이 단순한 교역 확대에 있지 않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를 동반자로 여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산 이씨 후손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산업경제에 투자하여 회사를 만들고, 관광 개발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베트남 언론에 높이 평가되었다. 물론 이용상의 후손들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혈연적인 인연을 매개로 베트남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기업과 베트남기업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2018년 이후부터 2020년 현재까지를 보면 베트남 언론들이 이창근과 한국-베트남 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9년 한국에 주한 베트남관광청 대표부가 설립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광 교류와 확대에 대한 화산 이씨의 후손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화산 이씨의 후손이면서 주한 베트남관광청 관광대사를 맡은 이창근은 그동안 많은 한국 관광객이 베트남을 찾아준 만큼 주한 베트남관광청 대표부의 한국 활동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류가 다소 약해졌지만 코로나 국면이 안정된 후 양국 간의 문화, 관광 교류 대책과 활성화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베트남의 언론들을 통해 많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베트남 언론들 역시 화산 이씨 후손들의 존재와 그들의 왕성한 활동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강조해왔다. 양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독자들은 이용상과 ‘화산 이

66)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베트남 문화 체육 관광을 위해 이영성에게 사장을 수상하였다.” 2014년 12월 3일.

(출처: <http://cucnghethuatbieudien.gov.vn/articleDetail.aspx?articleid=1140>)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용상의 존재와 활동의 객관적 사실성에 대해 다소간의 의문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용상이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라는 것을 암묵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양국의 우호 관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의 수반이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이용상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양국의 국민들이 '화산 이씨'를 베트남에서 온 귀화 성씨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의 국민들도 한국 역사 속에 홀연히 나타난 베트남의 역사적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민간차원에서나마 양국은 오래전부터 서로 보호하고 도와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용상의 존재로 인해 한국인들도 베트남의 역사에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베트남에 대한 친근감과 호감의 확대에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의 언론은 '한류'라는 용어만큼이나 '화산 이씨'라는 용어가 익숙해질 정도로 이용상과 관련된 많은 기사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베트남의 국민들도 한국의 문화, 역사와 한국인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더불어 친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상당히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객관성을 생명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언론매체와 기자들은 취재 대상이 가지는 내포적 가치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고 취재, 작성, 편집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주관적 가치가 반영된다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한 다양한 언론 보도들 역시 역사적 엄밀성과 객관성을 잣대로 삼을 경우에 다양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층 정보의 부족과는 별개로 양국의 언론을 통한 이용상과 화산 이씨 관련 보도들이 인간적인 친밀감의 확대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양국의 현대사를 보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를 거친 이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항미전쟁(kháng chiến chống Mỹ) 중 미국의 요청에 의해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이 참전을 하게 된 아픈 역사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국교수립 이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군에 의해 가족의 일부

가 학살을 당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 사람들과 해당 지역의 마을 사람들의 경우에 한국에 대해 이미지를 바꾸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 수립한 지 3년이 채 안된 시점에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에 찾아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연을 강조한 것은 양국관계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화산 이씨 후손들의 활동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를 확대해 나갔다. 베트남 정부 역시 화산 이씨 후손들의 ‘뿌리’ 찾기를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베트남 국적부여에 나서면서 전쟁을 통해 겪었던 양국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양국의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이용상의 30대 후손인 이훈이 리 영종 사당을 참배하면서 “수평선, 지평선은 어디 가든 고향으로 항상 향한다.”라고 말한 것에는 화산 이씨 후손들은 항상 베트남 사람이며 리 왕조의 후손이고 옛 조상의 조국과 태어난 조국이란 두 개의 조국을 가슴에 담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화산 이씨 후손의 그러한 발언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애국심과 더불어 민족적인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지금도 화산 이씨 후손들은 베트남 리 왕조 후손이라는 것을 토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800년을 뛰어넘어 조상의 뿌리를 찾는데 머무르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화산 이씨 후손들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양국이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유사성과 지속적인 직·간접적 교류들이 융합되어 양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토대로 오늘날 두 나라가 국제결혼 7만 가구에 달하는 ‘사돈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IV. 결론

베트남의 실용주의는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베트남 말이 “지벗비엔 응번비엔(以不變 應萬變·이불변 응만변)”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변화하는 것에 대응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베트남의 국민 영웅 호치민 주석이 1946년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과거 점령국이었던 프랑스와 협정을 맺으면서 사용했던 말이다. 호치민 주석은 이를 계기로 한때 반민족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독립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를 발휘하여 불변의 원칙으로 1만 가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실용주의는 통일 후에는 개혁·개방을 이끄는 국가 통치 철학으로 이어졌다. 총부리를 겨눴던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굳이 과거를 묻지 않는 ‘응만변’의 지혜를 발휘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불변’의 강단을 보인다. 2013년 베트남에 국민방문 시 박근혜 대통령도 “지벗비엔 응번비엔(以不變 應萬變)”을 언급하며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우정과 신뢰가 변치 않는다면 어떤 변화와 도전도 능히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베트남 간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갈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베트남을 찾겠다는 화산 이씨 후손들이 확고한 의지는 800년 만에 숙명적으로 베트남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먼 나라에서 베트남의 귀화인이란 흔적을 지워도 충분한 8세기 동안 조상의 뿌리를 잊지 않고 이어져 온 8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베트남을 찾고 리 왕조의 후손을 인정을 받은 것은 기적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양국 국민들의 연결이며 미래까지 이어지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화산 이씨 후손들은 한국에 태어났지만 자기의 원래 뿌리가 베트남 박녕성이라고 할 정도로 항상 마음속에는 베트남이 훌륭하고 발전된 나라가 되기 위해 기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때문에 매년 도 사당을 찾고 축제에 참석하여 베트남의 전통을 지키고 리 왕조가 최초의 독립국이란 자부심을 갖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나라의 근원을 잊어서

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에 국민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리롱명(이용상의 베트남어) 왕자'를 언급하며 양국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를 넘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원칙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의 중심의 베트남이라고 했듯이 화산 이씨 후손들도 베트남 정부로부터 리 왕조의 후손임을 인정받음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양국관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역사상 리 왕조의 황자 이용상(리룡뜨영, 李龍祥)이 13세기에 왕조멸망으로 인한 고려로 망명하여 귀화한 사건을 주목하고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II장에서는 이용상이 고려에 망명한 베트남의 리 왕조의 역사 배경을 살펴보았다. 1009년 10월 리 태조가 된 李公蘊(Lý Công Uẩn; 974~1028)은 왕위에 올라갔고 연호를 순천(Thuận Thiên; 順天)으로 하고 수도를 탕롱(昇龍, 지금의 하노이)으로 정하였다. 216년 동안 통치한 리 왕조는 베트남 역사상 정치, 문화, 군사 등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나라의 수도와 국호를 바꾸는 것부터 송나라를 물리치고 국토를 남쪽으로 넓게 확장 시켜 베트남이 독립과 자유로운 나라로써 초석을 다진 것이다. 특히 리 왕조는 베트남의 봉건시대 중에서 불교가 가장 흥성했으며 불교를 통해 2016년 동안 국토를 지켜냈으며 백성들을 보살피며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리 왕조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은 관대하고 후덕한 왕의 모습과 불교의 사상에 입각한 백성들을 보호한 정책들에 대해 지금도 칭송하고 있다. 이용상이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리 왕조의 역사적 배경은 1226년 쩌투도가 統國太師(통국태사)에 오른 후 리 휘동을 죽일 바랬으며 리 휘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리 찌에우황 여왕에게 강제로 남편 쩌간에게 왕위를 이양하게 하였다. 또한 쩌투도는 리 왕조의 대를 끊기 위해 모든 왕족을 죽임으로 몰아내는 이 강렬한 방법들을 시행하였다. 그것은 리 왕조를 몰살하여 왕조를 깨끗이 없애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리 왕조의 정신과 혈통을 지켜야만 죽어서도 조상을 대 할

수 있다는 베트남의 오랜 전통으로 왕족의 자존에 대한 이용상의 마지막 선택은 망명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용상이 베트남의 번돈 항구로부터 출발해서 대만에 잠깐 내리다가 고려 옹진군에 도착하였다. 고종의 배려를 통해 이용상과 친척들이 옹진군에 정착하게 되었고 1253년 몽골군을 물리친 공으로 고종으로부터 화산군으로 봉해지고 후손들이 대대로 고려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이는 화산 이씨 시조가 되었다.

III장에서는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에 어떻게 찾아왔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서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용상이 고려에 살고 있을 때 항상 베트남을 그리워했는데 돌아갈 수 없어서 후손들한테 언젠가는 혈통의 뿌리를 찾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800년 후에 꽤 오래 기간 동안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의 뿌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리 왕조의 후손임을 인정받기 위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실망하여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죽어도 베트남에서 죽겠다”란 마음으로 화산 이씨 후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트남의 리 왕조의 연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1995년 4월 13일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화산 이씨 후손들 18명이 조상의 땅인 딘방을 방문해서 시조에게 향을 피우면서 이용상 황자의 소원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이 제2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문화면에서 화산 이씨 후손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베 재단을 설립했고 도 사당에 「화산이씨세보」를 기증 및 『황숙 이용상』 역사소설도 베트남어로 출판하였다. 특히 매년 도 사당의 축제를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문화 활동을 뿐만 아니라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에 경제 쪽에서 투자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창근은 한국과 베트남 관광을 발전하기 위한 관광대사에 임명됐고 ‘주한베트남관광청’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용상 왕자의 36대손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회장 이상준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2006년에 ‘골든브릿지’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지원 등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의 80%를 현지인으로 채용하여 한국의 선진 금융기법과 제도를 전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이런 ‘화산 이씨’들의 작은 노력으로 한국과 베트남에 대한 서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으며 양국의 공통점들을 토대로 지속적인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두 나라가 국제결혼 7만 가구의 ‘사돈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정리해보면 이용상과 화산 이씨는 800년이란 시·공간적 제약으로 심층 분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 이용상의 후손들이 베트남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경로 및 활동에 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를 통해 그들이 베트남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상의 후손들이 베트남의 문화, 경제, 관광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화산 이씨 후손들의 노력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양국의 공통점들과 지속적인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셋째, 이용상 후손들의 활동을 통해 베트남은 한국과의 아픈 역사와 기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외교 관계는 양국의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통해 형성된 관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화산 이씨 후손들의 베트남에서 활발한 친화적인 활동과 노력은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들이 좀 더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참고 문헌

1. 사료

『高麗史』, 『大越史記全書』, 『越南史略』, 『甕津府邑誌』, 「受降門紀蹟碑」, 「花山李氏世譜」

2. 신문 및 기관지 자료

<한국의 신문 및 기관지 자료>

『국민일보』, 『광주매일신문』, 『경기일보』, 『강원도민일보』, 『경향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경북도민일보』, 『내일신문』, 『뉴스워치』,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무등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부산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세명일보』, 『인천일보』, 『인사이드비나』, 『영남일보』, 『아시아경제』, 『여행신문』, 『연합뉴스』, 『울산매일』, 『아주경제』, 『중앙일보』, 『중도일보』, 『충청일보』, 『충북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라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베트남의 신문 및 기관지 자료>

『공산당잡지』, 『고향지』, 『감찰지』, 『년전지』, 『노동지』, 『농업지』, 『대 결집지』, 『떠비엣지』, 『미술연주지』, 『문화체육지』, 『비엣남브러스』, 『불교지』, 『빠른지』, 『법률 생활지』, 『박장지』, 『선봉지』, 『사이공 해방지』, 『수도 젊은이』, 『수도 경제지』, 『새 하노이지』, 『수도 안전지』, 『인민공안지』, 『여행지』, 『젊은이』, 『전비엣』, 『전지』, 『정부지』, 『청년지』, 『vtv.vn』, 『vov.world』, 『zingnews.vn』.

3. 단행본

강무학, 『황숙 이용상』, 금문회사, 1966.

김영건, 『여명기의 조선』, 온이퍼브, 2014.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역사의 아침, 2007.

석주명, 『제주도 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보진재, 1968.

- 이윤섭, 『역동적 고려사 - 몽골 세계제국에도 당당히 맞선 고려의 오백 년 역사』, 필맥, 2004.
- 조흥국,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소나무, 2009.
-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우리는 어떻게 세계와 소통해왔는가』 (하), 창비, 2005.
- 최상수,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 개명문화사, 1958.
- Khuong Vũ Hạc (Kang Moo Hak), 『Hoàng thúc Lý Long Tường』,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2010.
- Nguyễn Đức Thìn, 『Di tích lịch sử văn hóa Đền Đô』, Nhà xuất bản Văn Hóa Dân Tộc, 2010.
- Phan Huy Lê, 『Tìm về cội nguồ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2014.
- Trương Hữu Quỳnh, Đinh Xuân Lâm, Lê Mậu Hãn, 『Đại cương lịch sử Việt Nam』,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Việt Nam, 2008.

4. 연구논문

- 강은해, 「고려무신 이의민의 역사와 베트남 왕손의 전설」, 동북아문화연구, 제29집, pp. 109-125, 2011.
- 딘 티 레 후옌 (Dinh Thi Le Huyen), 「베트남의 해상 교역과 수중 문화유산」, 2017, 국제학술대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박순교, 「Vietnam(大越) 황자 ‘李龍祥 Lý Long Tường’에 관한 연구(4) ‘花山 李氏 古宅(경북 영주시 장수면 星谷里 所在)’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제42집, 동아인문학회, 2018.
-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2009.
- 안대회, 「餘窩 睦萬中의 표류인 전기 「金福壽傳」 연구 -제주 민요 <오돌또기>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68호, 2014.
- 안대회, 「안남에 표류한 제주도민 김복수의 전기 두 편」, 『문헌과 해석』, 83권, 1호, 2018.
- 조흥국, 「12-14세기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 이주에 대한 재고찰」, 『석당논총』, 55권, 석당학술원, 2013.

조흥국, 「한국과 동남아간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고찰-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나는 14세기 말-15세기 초 태국 및 자바와의 접촉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76권, 인문학연구원, 1997.

허인옥, 「베트남인 李龍祥의 귀화 사례를 통해 본 고려시대 多文化 수용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2014.

Nguyễn Quang Ân, Phạm Quế Liên, Trần Tường Vân, 「Người Việt Nam ở Triều Tiên và mối giao lưu văn hóa Việt_ Triều trong lịch sử」, Hội khoa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1997.

Trịnh Khắc Mạnh, 「Khảo sát thơ văn xướng họa của các sứ thần hai nước Việt - Hàn thời kỳ trung đại」, Tạp chí Hán Nôm, số 2 (117), 2013.

Trần Thanh Nhân, 「Mối giao lưu văn hóa giữa các sứ thần Đại Việt - Triều Tiên trong lịch sử」, Tạp chí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số 9, 2012.

5. 전자 자료

<영상 자료>

Hãng phim Tài liệu và Khoa học Trung ương, “Tiếng gọi cội nguồn”, 1996. (<https://www.youtube.com/watch?v=ufgnvU5j39s>)

한국-베트남 국제공동제작, “오래된 약속”, 안동 MBC PLUS,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LrmUivdeilc>)

“베트남 왕손 화산이씨 유래”, KBS 역사스페셜,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iyQdO_ymNjU)

“Hậu duệ nhà Lý tìm về nguồn cội”, VTC1. (<https://www.youtube.com/watch?v=JXy3prsyZlg>)

<한국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베트남 웹사이트>

베트남 한국문화원: <http://vietnam.korean-culture.org/ko/170/korea/64>

베트남의 법률 정책에 관련 웹사이트: <https://thuvienphapluat.vn/>

베트남의 한놈연구원 (院研究漢喃): <http://hannom.org.vn/>

베트남의 역사연구: <https://nghiencuulichsu.com/>

vietstock: <https://vietstock.vn/>

Tia sang: <https://tiasang.com.vn/>

Hoi khoa hoc lich su Binh Duong: <http://www.sugia.vn/>